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 George Street ... TORONTO, CANADA M5S 1A5
NOV 4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70 1982년 11월 3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November 3,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 이민수 크게준다

## 실직자 보호위해 25% 감소

### 연방정부, 내년 상한선 110,000명으로 제한

(오타와) 캐나다의 높은 실업율 때문에 연방정부는 내년도 이민쿼터량을 당초 계획보다 25%이상 줄였다.

로이드·액스워시 고용·이민장관은 1일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실업률이 12.2%에 달하기 때문에 원래의 내년도 이민 쿼터량 134,000명내지 144,000명에서 105,000명내지 110,000명으로 하향 조정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액스워시장관은 이 보고서에서 난민의 이민수도 크게 줄여, 금년의 14,000명에서 내년도에는 12,000명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지역은 동구, 특히 폴랜드로, 이들에 대한 이민쿼터량이 절반으로 줄어, 3,000명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능공의 이민쿼터량도 심한 타격을 받아, 내년도의 당초 계획량 20,000명내지 25,000명수준에서 8,000명내지 10,000명수준으로 크게 줄였다.

액스워시장관은 이 보고서에서 이민을 희망하는 기능공들은 이민관들에게 자신은 캐나다기능공들의 직장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고용주는 캐나다 국내에서 기능공을 구할려고 노력했으나 국내에서 적당한 기능공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현재 캐나다 여러도시에서 계속 인종분규가 일고 있으나 "이는 아직까지는 심각한 단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이 내년도 이민쿼터량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캐나다는 개방국가로서 앞으로도 이민이 국가 인구증가의 "주요 요소"가 될것이며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금세기 말까지 계속 이민자들이 캐나다 인구성장의 20%를 점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이·액쉬디장관

한편 130,000명내지 145,000명수준으로 당초 책정전 84년도 이민쿼터량도 이번에 30,000명 삭감되었다.

금년도의 이민쿼터량은 130,000명내지 135,000명으로 발표되었으나, 하한선인 약130,000명이 이민으로 받아들여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는 쿼터 상한선이 140,000명이였으나 실제로는 128,611명이 입국 허용되었었다.

최근 가장 많이 이민을 받아들인 해는 1974년도 218,465명이 허용되었으며, 그후 매년 줄어들어 1978년도에는 86,313명밖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도에는 다시 143,117명으로 증가되었다.

캐나다사상 가장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 해는 1913년으로 무려 400,870명에 달했던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 이민자의 약40%가 온타리오주에 거주하고 있다.

◆83년도 미스·캐나다 조디·이본·루트레지양(오른쪽)이 당선이 발표되는 순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 22세인 미스·마니토바 조디양은 5피트 8인치키의 갈색머리 미녀. 왼쪽에서 축하해주고 있는 미녀는 마지막까지 경합한 미스·몬트리얼 릴리안·펠쉐잇양

## 한국, 재외학자 귀국 희망

### 금년 70명 초빙

(서울2일=연합) 한국은 주로 북미및 서독에서 활약중인 과학자 470명이 86년까지 귀국, 한국의 과학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처에 의하면 68년부터 지난 9월까지 한국서 근무하다가 외국으로 돌아간 한국과학자는 376명이며, 344명은 정부와 영구계약으로 한국서 영주중이다.

정부는 금년에도 과학자 70명을 초빙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내년부터 매년 50명은 영구적으로, 50명은 임시로 고용할 예정이다.

작년 10월말 현재 외국에 있는 한국 과학자는 2,957명이며, 이중 2,432명은 북미, 295명은 서독, 130명은 프랑스, 100명은 영국에서 활약 중이다.

## 타이레놀 제조회사

### 올해 총$5천만 손해

청산가리가 든 타이레놀 중독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타이레놀의 제조회사인 존슨·앤·존슨(J & J)은 마켓에서 판매중이던 타이레놀캡슐을 모두 수거하는등 이번사건 후유증으로 올해 3·4분기 총수입가운데 약5천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 외환시세

(서울=연합) 2일 외환은행이 고시한 캐나디안및 미국달러의 전신환 매입·매도율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달러 607.31/610.37
미국달러 742.80/746.60

## ◀사 고▶

### 제7회 사진대회

특등에 니콘 카메라

출품마감 11월10일

사진협회와 본사가 공동주최한 제7회 사진대회 출품마감일을 10일간 연장했읍니다.

출품을 하실 분은 오는 11월10일까지 본사로 보내시면 됩니다.

출품수및 크기 : 프린트 7매까지(5"×7" 이상이나 8"×10" 이상이 바람직함)
슬라이드 10매까지(35mm86cm×6cm)
부 문 : 칼라, 흑백, 슬라이드
접 수 처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
M6H 1Z7 (Tel : 533－2361)

—토론토 한국일보사—

## 임대아파트 분양

### 고든·청 토론토시에 제의

토론토시가 일부주택회사의 임대용 아파트를 사들여 콘도미념으로 개조시킨뒤 임대자들에게 싼값으로 팔자고 제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든·청의원은 이날 가자회견을 통해 토론토시가 관할 서민주택회사인 시티·홈이 시중 이자율로서 사채를 얻거나 CMHC로 부터 융자를 제공 받아 캐딜락·페어뷰회사가 그레이맥회사에 팔려고 하는 10,391채의 토론토내 임대아파트를 $2억7천만에 사들인 후 콘도미념으로 개조, 임대자들에 싼값으로 분양하자고 제안했었다.

고든·청의 이같은 제의는 대규모 유태계 주택건설임대회사인 캐딜락·페어뷰회사가 또다른 유태계회사인 그레이맥·크레딧회사에게 오는 16일부로 메트로·토론토내 68개단지의 10,931채 아파트를 팔아 넘기게 돼있고, 이로 말미암아 임대자들의 렌트비가 약40%까지 올라갈 전망이 보이자 선거를 앞두고 시중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온타리오주의 규정 에 따르면 렌트비 인상상한선은 연6%이나, 집주인이 바뀌면 집주인은 증액될 새 경비를 근거로 이 상한선 이상으로 렌트를 올릴 수 있게 되어있다.

◆고든·청의원

"이번 시[illegible]선에서 전 토론토시장 존·스웝, 잭·레이몬등과 제6지구에서 경합할 고든·청은 토론토시내 임대아파트의 5%이상을 까지하는 캐딜락·페어뷰회사소유의 아파트를 그레이맥회사에 넘기는 대신 토론토시가 관할하는 서민주택회사 시티·홈이 캐나다 모기지공사(CMHC)로 융자를 얻거나 해서 이를 사들여 이 콘도미넘으로 개조, 시중 콘도미넘가격보다 싼 $25,000정도씩에 임대자들에 매도하자고 제안했다.

1베드룸 콘도미넘에 $25,000이란 값은 대개 $4만~$5만씩하는 시중 콘도미넘가격보다 크게 유리하다.

고든·청은 이같은 제의를 하면서 일부 매입을 원치않는 임대자들은 계속 시티·홈에 인상되지 않은 수준의 렌트를 내고 살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타와의 CMHC 고위직원은 "이 제안은 해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임대가능율이 낮은 토론토지역에 11,000채의 임대아파트를 없앤다는 것은 전체적인 렌트를 올리는 요인만 만든다"고 말했다.

오는 8일 총선에서 고든·청의 가장 큰 적수가 될 존·스웝씨는 고든·청의 제안은 선거를 의식, 선거구민에 던진 미끼일 뿐이므로 3일 이 제안에 시의회에 상정되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잭·레이몬후보도 "현재의 임대자들은 대개 노인, 학생, 인컴이 고정된 사람들이라 고든·청의 제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탕발림"이라고 했고 메트로 임대자연맹대변인 웨슬리·로빈슨씨도 "선거를 의식한 인기 전략"이라고 공박했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 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ROLEX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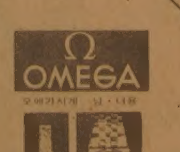
오늘의 예금금리(10/19부터)

한인신용조합

| 기 간 | 일반정기예금 | 오푸기정기예금 | 일반은행 |
|---|---|---|---|
| 30일 | 11.5% | | 10.25% |
| 90일 | 12% | | 10.75% |
| 180일 | 12% | 11.75% | 10.75% |
| 365일 | 12% | 11.75% | 10.7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결혼 예물, 보석시계




다이아몬드
반 지
목걸이
팔 찌
귀걸이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특별할인봉사>
모국 방문단 월 1회 단체출발
11월21일
12월26일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범

De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4 carat Solitaire
Reg. $1000
Special $749

이태리산 Herringbone CHAIN SPECIAL
▫16인치 $135
▫18인치 $150
▫20인치 $165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 토론토에 1메가톤급 핵
# 폭발하면 75만명 즉사

핵전쟁이 일어나 1메가톤급 핵폭탄이 토론토 다운타운 중심지점(영스트릿×퀸스트릿) 상공에서 폭발한다고 가상할때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인가?

근무시간중 폭발하면 75만명이 즉사하고 1백만명 이상이 중상을 입게 되며, 초저녁에 폭발하면 62만4천명이 즉사하고 79만5천명이 중상을 입게 될것이다.

이같은 자료는 오는 8일 시총선거에서 핵무기 군비축소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앞서 토론토시가 발간한 계몽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투표당일 유권자는 "당신은 핵무기로 부터 지구를 해방시킨다는 궁극적 목표아래 세계 모든 국가들의 점진적 핵군비축소를 지지하며, 또한 연방정부가 이같은 목표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달성하기 위해 다른정부와 협상하도록 위임하는가?"라는 설문에 찬성하면 "Yes," 반대하면 "No,"를 표시하면 된다.

이 계몽자료에 의하면 베더스트·스트릿, 블루어·스트릿과 돈·밸리·파크웨이로 이어지는 중심부에서 반경 2.4Km이내의 거주자는 모두 시속 966Km의 강풍에 휘말려 즉시 증발되던지 치명적인 방사진에 의해 전멸될 것이며, 시청, 의사당, 증권거래소, 유니온철도역등 이 지역내의 모든건물은 전볼 20층깊이의 분화구가 생기는 바람에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또한 중심부로부터 7.2Km이내(서쪽으로는 험버강, 북쪽으로는로렌스·애비뉴, 동쪽으로는 빅토리아·파크까지)는 폭발과 이로인한 화재로 건물이 모두 파괴되고 10명중 5명은 즉사하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3도화상과 날아오는 파편에 맞아 심한 부상을 입고 방사능에 노출되어 죽어갈 것이다.

중심부에서 반경13Km이내에 지역(키플링·에비뉴, 쉐퍼드·에비뉴, 미들랜드·에비뉴등)에서는 주민90%가 당장은 목숨을 부지할수는 있겠으나 2도내지 3도의 심한 화상을 입던지 시속 160Km속도의 강풍에 휘말려 크게 부상을 입게 될것이다. 나무, 커텐, 카페트, 가구등 가연성 물질은 불에 탈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대규모 돌풍화재로 산소를 빼앗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갈 것이다.

교외와 필(Peel)지역, 욕(York)및 더햄(Durham)등 인근지역의 거주자들도 대부분 부상, 방사선 노출, 주택및 의료시설 미비로 결국은 죽어가게 될것이며, 또한 식량이 크게 부족되고 식수가 모자라게 된다. 또한 각종 전염병이 만연되고 방사선에 의한 병과 암은 물론 후손에 유전적 결함을 물려주게 된다.

이 계몽자료에 의하면 세계에는 약 5만개의 핵폭탄이 산재해 있으며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소유면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외에도 남아프리카, 이스라엘, 리비아등도 핵무기를 소유하거나 생산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소련은 육상이나 잠수함에서 발사할수 있는 미사일을 이용하거나 폭격기에서의 투하등을 통해 핵공격을 할수 있다. 핵폭탄적재 미사일은 30분에 12,000Km를 날아 165m이내의 정확도로 목표물을 적중시킬수 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중간정도의 크기인 1메가톤급 핵폭탄은 TNT 1백만톤에 해당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력은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기에 투하된 원자탄 파괴력의 70배에 해당된다.

# 한국 직통 가능지 5개지역
# 노바·스코셔주 추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전화할 때 교환수를 통해야 전화가 가능하던 노바·스코셔주가 오는 20일부터 직접통화지역으로 추가된다고 벨·캐나다(온타리오)회사가 2일 본사에 통보했다.

단, 주의 수도 할리팍스 중심 반경 30마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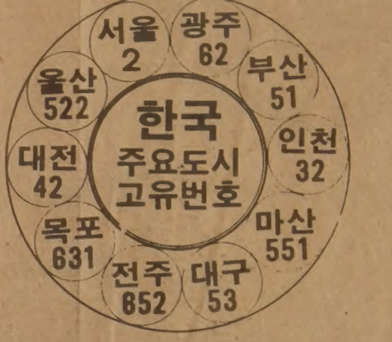
이제까지 교환수 없이 다이얼 011 또는 01-82-도시번호-전화번호를 돌리면 통화할 수 있는 지역은 온타리오, 퀘벡, 마니토바, 브리티쉬·콜럼비아등 4개주였고 직접통화 불가능지역은 사스카치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뉴펀드랜드, 뉴 브룬스위크및 노스웨스트·테리토리와 유콘·테리토리(연방정부 직접 통치지구)였다.

직접통화 시설이 없는 지역서 교환수를 통해 전화할 경우 특정인을 찾는 대인전화(퍼슨·투·퍼슨) 또는 전화료부담 전화(콜렉트·콜)가 아니면 스테이션·투·스테이션 콜 즉 직접 통화한 것으로 간주, 싼 직접통화요금이 적용된다.

한국에 전화 때 대인전화 또는 전화료부담전화면 「011」 대신 「01」을 돌려야 한다.

직접전화 가능지역

◉온타리오
◉퀘벡
◉마니토바
◉브리티쉬·콜럼비아




# 혜성「헬리」연구 활발
## 85년나타날 것에 대비

(파사데나-CNS)76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헬리 혜성의 신비를 벗기려는 천문기관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파사데나 제트추진연구소(JPL)와 서독 알레겐·뉴른베르그대학은 지난 1910년, 지구상에서 관측되었던 헬리 혜성이 오는 1985년에 다시 나타날 것에 대비, 사람들의 육안으로 발견되기 이전인 1985년10월까지 헬리 혜성의 신비를 풀기 위해 소련및 일본의 천문학자들과 다국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헬리혜성은 1705년 이 피물체를 발견한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몬드·헬리의 이름을 본따 붙인 명칭으로 에드몬드·헬리는 당시 이 아이작·뉴톤의 물리이론을 사용, 최초로 헬리 혜성의 주기를 찾아냈다.

에드몬드·헬리는 1531년, 1607년, 1682년에 지구상에 같은 피물체가 나타났다는 기록을 토대로 혜성의 주기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당시에 성행했던 혜성이론을 뒤엎었다.

한편 현존하는 기록에 의하면 헬리 혜성은 BC 240년에 처음으로 지구상에서 발견되었다.

## 결혼축하

신랑: 조기호씨 3남 석민군
신부: 임용철씨 3녀 영미양
때: 11월6일 하오1시
곳: 토론토영락교회
(126 O'conner Dr.)
주례: 김재광 목사
피로연: 교회친교실

# 한인교향악단 티켓 예매중
## 박영대씨와 협연대비, 단원보강

오는 11월14일(일) 밤8시 라이어슨대학 강당에서 토론토의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씨와의 협연으로 제4회 공연을 갖는 토론토한인오케스트라의 공연 티켓은 $10, $8씩으로 현재 각 예매처에서 판매되고 있다.

예매처는 모짜르트음악학원(881-8211), 다운타운 이튼백화점등 각 티켓트론(Ticketron), 토론토·심포니박스·오피스(146 Front St. W. #460)이며, 한인오케스트라 단원등 관계자들로부터도 구입 가능하다.

한인오케스트라는 최근 6명의 새 이사를 보강하는 한편, 이번 공연에 대비, 정규단원수를 40여명으로 늘렸다.

새 이사는 김문고, 김춘타, 김창범, 김상표, 이근우, 함병섭씨의 6명이다.

◆창립공연서부터 한인교향악단을 이끌어온 지휘자 김승순씨.

## 고대 동창회
### 신입교우환영회

고려대학교 동창회의 신입교우 환영회가 오는 6일 하오6시 서준경회장댁(1 Norbert Cr. 전화 621-4890)에서 열린다.

연락처는 정필수총무(전화 661-1819).

신입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제5계절

# 남성찬가

남지연 (가정주부)

◆남지연씨

신이 남자를 만들어 놓고 경탄한 이래로 남자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온갖 경의와 찬사와 축복을 받는다.

「지나가던 소금장수도 아들을 낳았다면 기뻐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말해주듯이 과히 친하지 않던 이웃까지도 문간에 친 금줄에 빨간 고추가 매달리면 덩달아 기뻐한다.

왜 우리는 태어나는 아기가 사내애일 때 그렇게 특별히 기뻐하는 것일까?

그것은 오랜 「남존여비」의 타성이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남성에게 사회적으로 여성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기대감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가, 특히 여성이 남성에게 거는 거대한 소망 때문이며, 무한한 원동력이 남성에게 있다는 큰 믿음이며, 또한 여성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 때문이 아니겠는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다만 남성」이라는 것 때문에 받아온 온갖 축복을 남성들은 한시라도 잊지 않을지어다.

그리고 기억 하시리라. 처자식 먹여 살린다는 미명하에 온갖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도 변명의 여지를 가진 치사한 남성들이여, 잊지 마실 일이다. 정당하게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남자다운 당당함이야 말로 바로 당신들이 내세울 수 있는 제일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여자라면 덮어놓고 깔보고, 요즈음 강해지는 여성의 힘에 지레 겁을 먹고 횡포로써 억누르려는 남성들도 기억하시리라.

횡포로 상처를 입히고도 직성을 풀지 못하는 폭력배는 결코 존경받는 남편이나 어버이가 될 수 없음을 당신들은 더더욱 잘 알고 있으리라.

진정한 의미의 남성다움이란 결코 여자를 유린하고 위축시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 속의 여성과 모성을 마음껏 기를 펴게 함으로써 당신들을 떠받들게 하는 귀한 인간성, 힘이 약한 것을 보호하려는 용기가 아니겠는가.

비록 「봉사북 방망이」만한 물건을 달았다고 으시댈 수 있는지는 몰라도 푸근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랑으로 여성들을 감싸지 못하는 남자는 다만 여성들의 경멸의 대상일 뿐임도 기억하시죠.

남성들이여, 그대들은 타고난 체력과 창조력, 용기와 의지로 역사를 창조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부디 딛고 선 여자로부터 그대들의 억센 발을 거두라. 억누르는 쾌감보다 감싸는 즐거움에 눈뜨라.

남성을 남성답게 돋보이게 하는 늠름함을 잃지 않는 한 남성! 그 이름 지구가 멸망하기 전, 마지막까지 영원히 찬란할지어다.

# 디지틀·오디오전축 개발
## 바늘 필요없고 수명반영구적

종래의 전축과는 차원이 다른 혁신적인 디지틀오디오·디스크(DAD) 플레이어가 최근 일본에서 개발돼 레코드산업에 혁명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

소니사와 히다찌사등은 최근 뛰어난 음질로 가히 「안방의 오키스트러」라고도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콤팩트형의 DAD전축을 개발, 오는10월부터 국내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DAD전축은 이제까지 사용돼온 보통음반크기의 약 6분의1밖에 안되는 작고 가벼운 음반을 사용하며 음율을 고르는 레이저증폭장치가 부착돼 있어 바늘이 필요없고 소음을 방지할수 있을뿐 아니라 수명이 거의 영구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전축을 들으려할 경우 과거처럼 음반에 레코드바늘을 접착시켜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또한 기존의 앰프와 스피커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듣고싶은 곡을 언제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장치도 갖추고있다.

한쪽에만 곡을 수록하도록 되어있는 이디지틀오디오전축의 음반은 최고70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디지틀 시그널로 수록되어 있는 곡을 레이저가 다시 분해, 거의 원음에 가까운 완벽한 음악을 재생시켜준다.

이전축의 대당가격은 제조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7만8천엔(6백97달러)에서 19만8천엔(7백76달러·마쓰시따사)선에서 각각 시판될 계획이다.

또한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잇점 때문에 음반의 수명이 거의 영구적인 이 전축의 디지틀음반값은 2천5백엔(10달러)에 거래되는 보통음반보다 다소 비싼 3천8백엔(14,90달러) 정도인 것으로 밝혀지고있다.

일본 소니사의 자회사인 CBS·소니사는 금년말까지 드보르자크의 첼로콘서트외 쇼팽의 폴레네즈곡등 1백12개곡을 이 디지틀전축음반에 수록, 일본국내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며 서유럽의 레코드제조메이커인 폴리그람사도 주로 고전가곡 부문의 50개곡을 선정, 수록한 음반을 서독및 영국 오디오제조회사등의 상표를 붙여 출반할 계획이다.

한편 이 DAD전축을 개발해낸 일본의 레코드제조회사들은 이 전축에 사용될 음반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83년 중반 전후에나 대소시장진출을 기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레코드업계의 분석가들은 이 혁신적인 스타일의 전축을 놓고 세계의 많은 레코드제조업체들이 숨가쁜 경쟁을 벌일것으로 예상되고있어 이 DAD전축의 가격이 시판이후 1년이내에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0>

金聖鍾 작

# 29분의 1 ⑤

## 첫번째 집은 보름전 이사온 銀行員…

1번 집은 2층 양옥이었다. 주인은 은행원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D은행 차장이었다. 이름은 박세기(朴世基), 40세였다. 집에는 부인과 아이들, 그리고 가정부가 있었다.

『미안합니다.』

수사관들은 부인의 양해를 구한 다음 집안팎을 샅샅이 살폈다. 마인은 카피트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혹시 뜯겨나간 부분이나 혈흔같은것을 발견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러나 한참동안 살펴보아도 그런 점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는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형사들이 이유도 밝히지 않고 집안팎을 뒤지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박선생은 지금 은행에 계시겠군요?』

『네…』

『D은행에 근무하신다고요?』

『네…』

『어느 지점에 근무하시나요?』

『본점에 근무하고 있어요.』

『왜 이리로 이사오셨나요?』

『아파트가 싫어서요. 무슨 일로 그러세요? 우리 그이한테 무슨일이라도…?』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읍니다. 좀 알아볼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요.』

『우리 그이는 일 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실테죠. 혹시 박선생 친구분중에 모세라는사람있읍니까?』

『모세요?』

『네, 모세라는 사람말입니다.』

부인은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마인은 어린 가정부를 따로 불렀다.

『너, 바른대로 말해야 한다.』

열댓살 밖에 안 돼 보이는 가정부는 겁먹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떡였다.

『지금부터 20여일 전에…그러니까 12월4일경에 혹시 어떤 키 큰 남자가 여기에 찾아오지 않았니? 틀림없이 찾아와서 주인아주머니나 주인 아저씨를 만났을텐데…』

어린 가정부는 한참 생각해보다가 머리를 저었다.

『찾아온 적 없어요.』

『아, 내가 잘못 물었다. 이리로 이사온 것이 12월10일이니까 저쪽 집에 그 사람이 찾아왔겠구나. 어때? 저쪽 집에 있을때 찾아왔지?』

가정부는 머리를 저었다.

『아저씨 없을 때 혹시 아주머니 찾아오는 남자도 없었어?』

『없었어요.』

아무리 이리저리 물어도 가정부는 부인만했다. 그녀의 대답에는 거짓이 없는 것 같았다.

마인은 그집을 나와 혼자서 D은행 본점을 찾아갔다. 얼른 사람을 만나보지 않고는 좀이쑤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박세기는 이미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긴장한 얼굴로 그를 맞았다. 안경을 낀 조그만사내였다.

朴男 그림


#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저이자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 필리핀언어학교

로렛타 오안다산 여사
마니토바 필리핀교사협회 회장

지난번 위니펙에서 개최된 한글교육자대회에 참석한 각 에트닉 모국어학교 교육담당자의 현황보고 중국어에 이어 두번째로 필리핀어교육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다.

영어로 발표됐으며 번역은 대회를 주관한 위니펙의 생물학박사 김원겸씨가 담당했다.

## 설립동기는 부당대우 시정위해

위니펙 필리핀학교는 1978년에 마니토바 필리핀교사회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학교설립의 이유는 필리핀 이민자녀및 필리핀 청소년들이 여러모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타개하기 위함이었다. 즉 캐나다당국은 영어가 자유롭지 못한 이민 자녀 또는 새로 도착한 자녀들을 습득이 늦은 아이들 아니면 지능이 저능한 아이들을 위한 학급에다 편입시키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서 마니토바 필리핀교사협회가 창설되었고 산하에 학교를 두게 되었다.

학교창설 첫해에는 필리핀 문화와 필리핀 언어를 가르치기로 결정, 주정부 교육당국과의 협의하에 필리핀 자녀들의 부모들과의 모임을 조직했고, 첫해에는 10학급으로 제일학년부터 고등학교 수준의 언어를 지도했는데 학생가운데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25명의 어른도 있었다.

교사들은 무보수로 가르치며 모두 마니토바교사협회 회원으로 되어있어 교사자격은 더 말할것도 없이 잘 구비되어 있다.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사가 필요이상으로 많아 형편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매 3개월 교대로 가르치고 있다. 대신 선생님들은 매주 자동차 휘발유값으로 5불씩 주고 있다.

학교 수업기간은 9월에서 다음해 5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겨울에 영하 40도가 되는 경우에는 휴강하는 때도 있으며 이러한 때는 교사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 또 때로는 휴강을 이용하여 시청각 교육자료를 서로 같이 만들기도 한다.

정부에서 복합문화정책을 강조하기 시작한 뒤에는 학교에서 민속무용, 필리핀요리법 및 음악을 가르쳐왔으며 이러한 강습 및 음악시간에는 전부 필리핀 말로서 지도하고 있다. 이것이 아주 효과적이어서 학생들은 재미를 부치기 시작하며 얼마되지 않아 아이들은 학교에 오는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을 정도로 되었다.

학교 교실관계는 어느 학교나 다름없이 적당한 장소가 없어 1978년 이래 학교를 세번 옮겼으며 학교수업은 매토요일 오후 1시30분에서 시작하여 두시간 한다. 처음에는 3시간이었는데 유치부 학생들을 위해서 두시간으로 줄였다.

학교운영은 주정부, 연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전혀 돈을 내지 않게 되어 있다. 대신 학교특별행사가 있을때는, 학부형들의 회사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교과서 채용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교과서없이 했으나 금년에 들어서 연방정부 자금보조로 필리핀에 가서 교육재료를 많이 수집해 왔으며 교과서 작성이 끝 있을 것으로 보며(자금을 벌써 받았음) 이로 말미암아 우리들 학교 지도방침및 교과평가기준이 확정되어 교사들의 지도방침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니펙시 교육당국에서는 필리핀 교사를 채용하여 현재 두 학교가 정식 수업에 언어를 가르치게 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몇학교가 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캐나다생활에 빨리 적응하면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잃지 않으려면 제나라 말을 빨리 배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 누-'들이 이곳에서 필리핀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소개를 하는 이유의 또하나는 이 아이들의 완전한 인격을 도모하고 필리핀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데 있다고 본다.

필리핀사람들은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으며 언제든지 필리핀사람들의 명예를 떨치는데 조금도 어색함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으며 자신과 굳은 신념을 길러주는 것으로 본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의 장래 사회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니토바 필리핀교사협회는 힘껏 노력하며, 노력할 것을 믿는다.

왕년의 여배우 이탈리아의 지나·롤로브리지다(54)여사가 2일 50 Bloor St. W.의 윌리엄·애쉴리 도자기상점의 희귀 이탤리언 도자기작품 전시회에 참석차 토론토에 도착했다.

5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있는 롤로브리지다여사는 사진작가이자 화가로서도 활약하고 있으며 수년전 작품 전시회를 가진바도 있다.

〈꽁트〉

# 한 노인

여 동 원

◆여동원씨

우리 가게를 이웃하여 작은 규모의 아담한 양로원 하나가 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한즈 노인은 매일 적어도 2번은우리 가게에 들른다. 2차전때 포로로 잡혀 왔다가 주저앉은 독일계 이민자다.

10년전 이혼하고, 아들 하나는 미국에 살고, 하나는 독일에서 살고 있단다.

"한즈 노인! 그 양로원에 혼자 사는 좋은 할머니도 많은데, 왜 다시 결혼할 생각은 않고, 외롭게 따분하게 혼자 지내시나요?"

이 내 물음이란 것도 반농담겸 진담인, 세상에 흔히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질문이다.

"너, 나 웃기지 말라. 세상에 있어 위험하고 골치 아픈 것 2가지 넌 모르니? 마누라와 자동차다."

그래서인지, 그분은 자동차도 없다. 그래서인지, 그분은 어지간한 데는 걷는다. 그분의 하루 일과는 2마일 지정된 거리를 2번씩 걷는 것 전부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시간에 어김없이 걷고는 그 시간에 두번씩 우리 가게에 들른다.

"한즈 노인, 제가 알기로는 당신 돈이 많다는데, 비행기 타고 하와이도 가고, 고향 독일도 가고, 버스 타고 시내도 한번 가고, 기차타고 몬트리얼도 한번 다녀오고 하시지요. 따분하게 똑같은 거리를 시계추 마냥 왔다갔다 하시나요?"

"너 답답한 친구구나. 비행기 추락소식 듣지 못했니? 납치사건 듣지 못했니? 버스 타고 안전하니? 기차는 전복 안하나? 걷는 것이 최고다. 내 이 두발이 제일 안전하지. 그리고 이렇게 4마일씩 걷고 나면 저녁에 잠 잘 오거든. 지금 우리 양로원에는 밤에 잠을 못자서 고민하고 고생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천하 바보들이지, 낮동안은 밖에 나가지 않고 낮잠이나 자고, TV나 보고, 잡담이나 하고, 죽치고 있으니 밤에 잠이 올게 뭔가?"

그래서 한즈 노인은 오직 건강을 위해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시계추 마냥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종전후 한번도 고향 독일에 가본 일이 없단다.

"한즈 노인, 일요일이면 교회에도 좀 가고, 다른 취미도 좀 붙여야지, 늘상 혼자니 옆에서 보기에 딱합니다."

"딱한 건 너의 머리다. 넌 골이 비어도 많이 비었다. 하느님은 저 웃쪽에 계시는데, 그래 그 멀쩡한 사람들 먹고 살라고 돈 갖다 내? 유능한 세일즈맨들이 내 주머니 사정을 눈치 보고 있는 교회비지네스에 내가 아직 골의나사가 빠지지 안했는데 가당하겠니?"

그 노인이 일주일만에 나타났다. 전에 없던 일이다.

"오! 한즈 노인, 그동안 몸이라도 불편했소? 몹시 궁금했읍니다."

"오랜만에 비행기 타고 뉴욕에 갔다 왔다. 아들한테……. 손자 결혼식이라고 오라는데 안갈 수 있어야지. 그런데 혼이 났다. 아글쎄 비행기 바퀴가 안 빠진다면서 비행장 위를 뺑뺑이를 돌기를 몇번. 간이 콩알이 되었지. 다행히 바퀴가 나와 내리긴 했지만, 역시 비행기 탈 것 아니야. 올 때는 아예 기차로 왔지. 아무데도 갈 데가 못돼. 이곳이 최고야. 그리고 말이다. 그 여우같은 며느리가 뭐랬는지 알아? 「아버님, 연세도 꽤하신데 왜 그 먼데 혼자 외롭게 사세요? 우리와 함께 살아요. 집도 넓은데,」고 앙큼한 것, 뻔하거든. 내 재산이 탐이 나거든. 이제 내가 늙으니까 아양을 떨어.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어. 가봐, 뻔하지. 방에 가두어 두고, 내가 어서 죽기만을 기다릴 고것들과 내가 같이 살아? 그래? 안그래?"

한즈 노인이 이번에 또 이틀동안 보이지 않는다. 뭔가 예감이 이상하여 같은 양로원 노인에게 물어봤다.

"한즈 노인이 몸이 불편한가요? 며칠 볼 수가 없네요."

"넌 소식 듣지 못했나 보지. 입원했지. 다리 하나가 영 못쓰게 될 것 같다누만."

"뭐요! 왜요?"

설명은 이렇다. 매일 걷은 그 길을 그날도 공식처럼 걷고 있는데, 난데없이 10대 술취한 놈의 차에 들여 받쳐 병원에 옮겨보니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고, 다리하나가 뭉개져 버렸다고 한다.

나는 부랴부랴 꽃을 사들고 병원문을 열었다.

"한즈 노인, 이거 어떻게 된 거요?"

"너 왔구나. 그놈의 자식, 그래도 한쪽 다리는 남겨줘서 다행이구먼!"

"걷는 것이 제일 안전하시다더니……."

"그러게 말이다. 안전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그저 조심히 산다는 것이지. 그리고 다음 운명은 하느님에게 맡겨야지."

"교회도 안 가신다면서 어울리지 않게 하느님은 들먹거려요?"

"허허! 하느님이야 믿지. 그래 네 말이 옳았어. 죽고 사는 건 운명이야. 너 차 조심히 몰아라."

그래도 명랑함을 잊지 않은 이 외로운 노인에게 하느님의 가호를 빌며, 병원문을 나왔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휘미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 ·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게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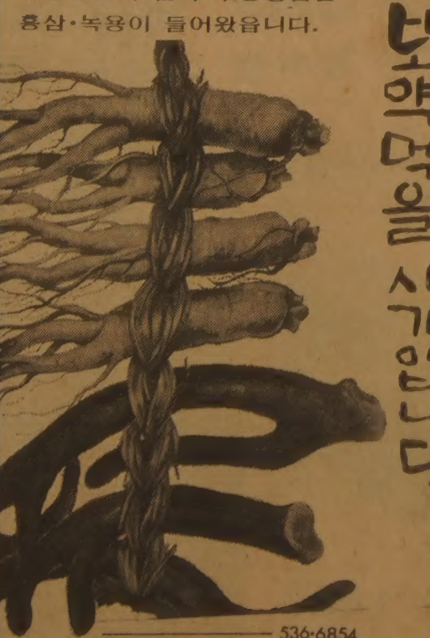
교사채용공고

한국어(1,2학년반)와
미술을 담당해
주실 경험있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봉급 일당 $75)

구비서류 : 이력서
보낼곳:
150 Madison Ave.
Tor. Ont. M5R 2S5
문의전화 : 960—0074

씨왈한국인학교

○중공에서 진짜 우황청심환
홍삼·녹용이 들어왔읍니다.
남녀노소 보약먹을 시기입니다



536-6854
하르빈한약상사
643 A- BLOOR ST. WEST

## 부 고

대한불교 대각사(토론토 소재)설립자 모친 청신녀 김평등성은 서기1982년11월2일 오전4시45분 미시사가병원에서 향년72세로 별세하였사옵기에 이에 부고 함.

1982년11월2일

장자: 유 일 환
차자: 유 동 환

발인장소: Gurmer & Porter
2180 Hurontario St.
Miss. Ont.
전 화: 279-7663
일 시: 1982년 11월4일(목)
오전10시15분
다비장소: St. James Cemetery
◉개별부고는 생략 함.

보광한약방
확장 이전
개업 안내

○임상경력 30여년
경험으로 최대봉사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 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B)588-1984
(R)439-6717
627 Bloor St. W. #200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2층)
송계 김 남 집

# 實名制 대폭 補完

# 사실상 延期될 가능성

## 政府·民正 "法案은 會期內 통과"

정부와 民正黨은 29일상오 중앙청후생관에이어 다시 자리를 옮겨 두차례 黨政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국회財務委에서 현재 심의중인「金融實名去來法案」의 처리문제를 놓고 협의한끝에 이번 정기국회 會期내에 법안을 통과 처리하고 실시시기등 實名制의 문제점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재조정 補完키로 했다. 金瑢泰 民正黨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후 발표문을통해『實名去來制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이취지를 살리면서 경제위축을 초래하지않는 선에서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實名去來法案을 보완하기로 黨政간에 합의했다』고 밝히고『앞으로의 국회심의과정에서는 그동안의 심의를 통해 露呈된 의견과 많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법안내용을 다듬기로했다』고 밝혔다.

### 86년부터 實施論도 대두

그는이어『가장많은 논란이 補完대상에 포함되며 국회심의과정에서 다뤄질것』이라고 말해 法案에규정된83년1월1일이후로 실시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民正黨의 한 고위소식통은『民正黨은 이날회의에서 예금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증권시장이 침체되는등 여러가지 副作用이 심하고 정부의 준비태세도안돼 내년부터 당장실시하는것보다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히고『실시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측과 黨政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民正黨의 다른 소식통은『현재의 경제여건으로 보아 實名制는 경제여건이 성숙되고 제반행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는 86년부터 시행하는것이 黨의 입장인것으로 알고있다』면서『이번국회에서 民正黨은 實名制법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일을 86년1월1일부터로 수정하거나 시행일자를 시행령에 위임해 실시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게될것』이라고 전망했다.

民正黨은 그동안 현재의 實名制법안중▲株式·社債거래등은 국내자본시장육성을 위해 일정기간 實名制대상에서 제외하고 ▲83년7월1일이후 滿期가 到來하는 기존무기명·假名예금에 대한 高率稅率적용을 高率金利 적용으로 완화하고 ▲82년7월3일~금년말까지의 무기명·假名 금융거래에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소급적용의성격이 분명하므로 이를 배제해야하며 ▲租稅목적을위한 자료제출은 預·積金의 비밀보장을위해 더욱 엄격히 축소해야하며 ▲少額주주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등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국회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반영될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와 民正黨은 28일 고위黨政협의에서 實名制법안을 당초방침대로 보완하여 통과, 내년1월1일부터 實名制를 실시키로 대체적 합의를 보았으나 29일의 黨政정책조정회의에서는 實名制 실시시기를 국회심의과정에서 논의, 설정키로했다.

이날 黨政정책조정회의에는 정부측에서 金相浹국무총리, 金埈成부총리, 盧泰愚내무, 姜慶植재무, 吳世應정무장관, 許和平청와대정무제1수석, 金在益경제수석비서관 등이, 民正黨측에서는 李載瀅대표위원, 王相殷중앙위의장, 權翊鉉사무총장, 陳懿鍾정책위의장, 李鍾贊총무, 南在斗총재비서실장, 金瑢泰대변인, 朴泰俊국회재무위원장등이 참석했다.

◇實名制 진통
實名制에관한 黨政정책 조정회의 결과가 발표된뒤 29일하오 국회 재무위 회의실에서 對坐한 姜慶植재무장관(左)과 朴泰俊재무위원장. 姜장관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채 침울한 표정으로 차위원장과 무언가 얘기를 나누고있다.

# 사후補完·延期배경추궁

## 어제 國會財務委, 질의·답변

국회는 29일하오 內務·財務등 8개常委를 열고 일반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豫決委는 82년도 追更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고 올림픽지원特委는 서울시로부터 올림픽준비 상황등을 보고받았다.

【財務委】 李敏雙·金鍾仁·張慶宇(이상民正)·朴完奎(民韓)·李聖秀의원(국민)등은 정부와 民正黨의 黨政정책 조정회의에서 결정한 實名制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民正黨의원들은 實名制 사후補完策을 따졌고 야당의원들은 실시연기의 배경을 물었다. 民正黨의원들은『實名制를실시하는원칙에는찬성하나 예상되는 副作用은 재검토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實名制실시로 발생할수있는 경제적波及효과와 逆기능이 저소득층에 피해를줄경우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民正黨의원들은 또『투기를노린 요구불예금이 증가되고 자본시장이 위축되는것은 7·3조치이후에 나타난 경제현상』이라고지적,『정부의 고도성장정책을 탈피한 안정성장경제정책부를 수정해야하지않겠느냐』고 물었다.

朴完奎의원은『법안을보완하여 83년부터 신규예금의 實名制를실시할용의가 없는가』고 물은후『成人이 금융자산을 수십억원씩 분산하여 實名化할경우 사실상 증여행위를 허용하는것으로 볼수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李聖秀의원은『7·3조치 발표후 이미 나타난 경제副作用의 확산은 국민경제에 마이너스효과가 더많다』고 지적하고 7·3조치의 전면유보를 촉구했다.

姜慶植재무장관은 답변에서『實名制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거듭 밝히고『7·3實名制구상직후 일시적으로 저축성예금이 줄고 金시세가 오르는 충격이 있었지만 공청회등 民意의수렴과정등을 통한 보완과 국민의 인식제고등으로 金값등은 오히려 안정세를 찾았고 이제 경제의 왜곡된 현상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 3년不況 벗어나

## 景氣예고指標 1·1 安定勢로

국내경기가 3년여에 걸친 장기불황을 벗어나 안정국면에 들어선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은 29일 2~3개월후의 경기동향을 예고해주는 景氣豫告指標(WI)의 종합점수가 9월중 1·1을 기록, 지난79년6월이후 3년3개월만에不況분기점인1·0을 돌파했다고발표했다.

경기예고지표는 1·0이하가불황, 1·0~2·0이안정, 2·0초과가 과열을 나타내는것이므로 9월중 이지표가 1·1을 기록한것은국내경기가 오는연말안에 불황을 벗어나 안정국면에 들어서게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날 기획원이 발표한 9월중 경제동향에 의하면 ①경기예고지표(WI)가1·0을 돌파했을뿐 아니라②경기종합지수(CI)의 선행지표도 9월중 1·9%의 이례적인 큰폭으로 상승하면서연속 7개월째 계속 상승세를보여 국내경기가 생산·투자·소비·건축등 內需부문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스페인 總選 社會黨 압승

## 새首相에 곤살레스

◇곤살레스

【마드리드(西)AP=聯】 스페인 社會勞動黨(이하 사회당)은 28일 실시된 總選에서 당초 예상대로 압도적 지지를 획득, 절대다수의 의회의석을 확보함으로써 펠리페·곤살레스 사회당수의 차기수상취임이 확정됐다.

한·호세·이사라·델·코랄 스페인 내무차관은 29일새벽(이하 현지시간) 사회당이 45·7%(의석 1백94)의 지지를 획득, 압승을 거두었으며 2·3위는 24·9%(〃97)와 7·2%(〃13)의 지지를 얻은 우익 人民同盟과 現집권 民主中道聯合이 각각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 貿易정책·輸出전략講演

韓國貿易研修院(원장 金泰豐)은 한국일보사 후원으로 오는11월10일 하오1시30분부터 7시까지 무역회관 9층 대회의실에서 83년도 무역정책및 수출전략에 관한 강연회를 갖는다. ▲83년도 무역정책방향(李東勳상공부상역국장) ▲세계경제와 한국무역의 진로(李豊 KIET동향분석실장) ▲한국무역의 과제와 대책(金泰豐 무역연수원장)등 주제강연이 있다.

# 秋穀수매시작

올 추곡수매가 29일 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시작돼 내년 1월20일까지 84일간 전국적으로 계속된다.

# 独立紀念館 건립誠金

##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29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許弼奭씨

東京商銀信用組合(許弼奭 理事長外) 1백1만円

쌍문중학교 김덕기校長 外 1백29만원

▲東京商銀信用組合理事長許弼奭씨外任職員一同=日貨1백1만円【東京支社접수】

▲쌍문중학교(교장 김덕기)교직원및학생(대표2년이용재군, 이순영양·인솔 김동호학생주임)一同=1백29만5백45원【소년한국접수】

▲서울대조국교(교장안종섭)전교생(대표6년배윤택·유성훈·현병주·백승희양·인솔노승동)및교직원一同(3차분)=77만8천4백1원【소년한국접수】

▲韓國新光電子(株)대표이사吳根赫씨外任職員一同=77만3천원

▲天佑倉庫 代表 朴一鉉씨外 任職員一同=51만9천원

▲在아이버리코스트 교민및 체류자 6세대=美貨 4백30달러

▲에이원라사 代表 徐奎願씨=20만원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임직원一同=20만원

▲大韓美容師會 九老區支會長 朴順姬씨外 회원一同=20만원

▲순국선열 車利錫先生유족=20만원

▲東光製作所 사장 金憲元씨外 任職員一同=19만3천3백60원

▲在獨월하임거주 민경석씨=美貨 2백달러

▲中區新堂2洞11통8반주민一同=11만3천원

▲영신자동차기술학원=10만원

▲井邑郡七寶出身 寶友會 회장 金永哲씨外 회원一同=10만원【영동보급소접수】

서울대조국교일동 77만원

韓國新光電子(株) 77만원

天佑倉庫일동 51만원

아이버리코스트僑民 4백30弗

에이원라사 徐奎願 20만원

한국조선공업조합 20만원

美容師九老支會 20만원

先烈車利錫先生유족 20만원

東光製作所 19만원

在獨민경석씨 2백弗

新堂2洞11통8반 11만원

영신자동차기술학원 10만원

井邑七寶출신 寶友會 10만원

▲江東區岩寺1洞34통장 곽종근씨外주민一同=9만4천3백원【암사보급소접수】

▲京畿道安養市비산1동주공아파트14통주민一同=5만원

▲성동고등공민학교교직원및학생一同=7만5천1백50원

▲仁川東區松峴2洞二和親睦會회원一同=5만원

▲鍾路區孝子洞익명의독자=4만3천40원

▲城北區敦岩2洞17통주민一同=4만8천원

▲恩平區佛光2洞29통4반주민一同=3만4천원

▲江南區論峴洞26통5반주민一동=1만9천5백원【영동보급소접수】

▲大韓老人會南陽州郡支部 和道面分會 회원一同=7만1천원

▲東京都北區昭和町2丁目7番2號모나미興業社長 康東文씨=日貨2萬円

▲典農1洞十七同志親睦會(회장金永義) 회원一同=5만원【東京支社접수】

▲恩平區津寬內洞11통5반주민一同=3만원

▲만화가 김성환씨=3만원

▲道峰區雙門4洞26통1반장 박재광씨외주민一同=1만6천원

▲仁川市南區龍現洞610번지 최인중씨=3만원

▲仁川市南區道禾洞22통4반주민一同=5만원【仁川支社접수】

▲한주건설 이해주씨=1만원

▲東大門區답십리 무지개미술학원 박소영양=1만원

▲서울은평국교5반 환혜미양=2천원【소년한국접수】

## 社會漫評

팀창단이래 처음으로 한포인트 땄읍니다…

## 地平線

정치는 無血의 전쟁이며, 전쟁은 流血의 정치라고 한다. 이것은 독일의 한 兵學者 클라우제비츠의 名言이지만, 毛澤東도 이말을 座右銘으로 삼아 中國共産化작략에 활용했다고 한다. 毛에있어 國共合作회담은 형태를 달리한 전쟁의 연장이었지 정치和解는 아니었다. 정치에는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앞면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이 흔히 있게마련이다.

▼닉슨 전미국대통령은 流血無血의 형태로 非情하게 暗鬪하는 정치의 表裏와 二重性을 최근 한 TV회견에서 솔직하게 표현했다.『偽善은 정치의 한 부분이며 당선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선거에 나선 후보는 假裝하지 않을수없으며 개인으로서 생각하는바를 그대로 말하기 어렵다는것을 認知하지 않을수 없다. 언젠가는 사람들을 이용해야하거나 그들이 필요해지기때문이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이같은 견해를 닉슨이ABC·TV의 인기있는「굿모닝 아메리카」회견쇼서 쟁점많은 미중간선거를 수일앞둔 시기에 밝힌데서 미국사람들의 상당한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닉슨은 이어『대통령이 그가 그렇게 믿지않고 있는것을 말할때 不道德한 감각으로 거짓말을 하는것은 아니다. 설령 사실은 그렇지않더라도 외국지도자인경우엔 그가 존경할만하며 지성적이라고 칭찬 부르게된다』고도 실토했다. 정치의 속성을 다소라도 이해하고있는 사람들에겐 그다지 신기하게 들리지도 않겠거니와 좋은 얘기도 아닌것을 닉슨이 왜 굳이 입밖에 내놓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우선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대통령사임이 강요된데서 잠재해있는 그의 열등의식의 변형된 표현이라고 추측해볼수 있을것 같다. 닉슨이 워터게이트사건자체에 관련된데도 국민의 불만은 대단했지만,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그것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게되었다는것이 그를 물러서게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닉슨은 어떤대통령도 不道德한 입장에서가아니라 거짓말을 하게된다는 처지를 넌지시 비쳤다고 하겠다.

▼또좋게보면 미중간선거의 최대쟁점이 되고있는 42년만의 10·1%란 최고실업률을 둘러싼 與野후보들의 그럴싸한 주장을 액면그대로 믿지말라는 뜻도 담겨져있는것같다. 선거철이면 비슷한 이야기는 늘 들게마련이다. 28일 실시된 스페인총선에선 과연 어떠했는지 모르겠다. 결과는 40세의 곤살레스가이끄는 社會勞動黨이 압승하여 46년간의 右翼保守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左派정치가 대신들어서게됐다는 보도다. 선거공약으로 내건 그의 나토탈퇴주장도 당선을위한 거짓말은 아니었는지—。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자개전문가구"
La Maison
Nacrebec Inc.
금년말까지 교민들께
도매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응접실 각종 테이블, 바-아 셀트, 부페 셀, 침대 셀
⊙자개의 멋과 품위를 이용한 "현대식 서양가구"

※지역 대리점이나 쎄일즈에
관심있으신분 연락 요망.

공장 : ☎1-514-527-1403
집 : ☎1-514-374-2846
4297 FRONTENAC MONTREAL, QUE.
대표 강 유 수

# 「實」은 늦추고 「名」은 살려

## ——實名制 대폭補完 실시延期의 속사정

### 정치적 迂餘曲折

## 陣痛속 黨政이 서로體面지켜

### 立法精神에 따라 理想과 현실을 절충해야

최근 며칠사이에 금융實名去來制를 두고 정부와民正黨간에 엎치락 뒤치락하던 움직임은 29일의 마라톤黨政협의회를 계기로 결국 국회에 제출된 法案을 재검토·補完하는선에서 일단락된것같다.

이법안을 이번會期중에 보완·통과시킨다는점에서 당초 實名制의 기본정신을 살리고 실시시기등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문제는 국회심의에서 결론을 내리도록한다는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문제의焦點인 실시시기를 정부제출법안에 규정된 내년1월1일로고집하지않고 검토보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民正黨의 주장이 반영된셈이다.

28일하오까지만 해도 당초 방침대로 실시한다는 정부측의 뜻을 따를수밖에 없다고 포기하다시피 했던 民正黨은 29일의 黨政협의를 계기로당초 黨論에 대한 黨內反論을 상당히 관철시킨것이다.

28일하오 까지만 해도 「연기나 白紙化는 억측이다」(權翊鉉사무총장) 「정부안대로 할수밖에 없을것같다」(陳懿鍾정책위의장) 「내년1월1일부터 실시한다는 전제아래 보완·통과시킨다」(李鍾贊원내총무) 등 黨職者들은 그들의 재검토 의지를 포기하는듯했다.

그래서 29일밤으로 예정된 黨政정책조정 회의까지도 무기연기한다고 정부측에 통고할 정도였다.

그러나 29일 아침에 黨政조정회의를 한다는 결정이내려지면서부터 民正黨이 률백하는 분위기로 서서히 바뀌었고 29일 黨政조정회의가열리면서부터 民正黨의 延期論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民正黨으로서는 정부가 당장 실시할 준비태세도 갖추지않았고 은행예금이 빠져나가고 內資를 조달해야할 증권시장이 침체에 빠지는등 여러가지 副作用과 逆機能을 들어 당장 실시하는것보다는 연기나 留保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년1월1일부터 실시하겠다고고집하던 정부는 일단 民正黨의 延期論에 귀를 기울여 결국 실시 시기를 다시 협의하자고 한걸음 뒤로 물러서게된 것이다.

이번 會期내에 통과처리한다는 방침은 實名制를 실시해야한다는 정부의 강력한의지를 반영한것이고 실시시기등 문젯점을 보완한다는것은 民正黨의 연기보류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수있을것같다.

이렇게보면 정부와 民正黨의 입장을 서로 절충하는 中間線같기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民正黨의 주장이 정부측에 먹혀들어간 셈이 된것이다.

그러나 民正黨은 정부가양보나 후퇴를하고 民正黨이判定勝을했다는 인상을 주지않기위해 상당히 신경을 쓰는 눈치이다.

29일의 黨政정책조정회의에대한 金瑢泰대변인의 발표문은 정부의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하느라 구체적인내용을 담고있지않아 實名制의 行方이 어디인지 오히려 어리둥절하게 만들정도였다.

결과적으로 民正黨도 黨論을 변경하는 결과를 낳았고 정부도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것이 사실이라면 정정당당하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좀더 떳떳하지 않느냐는것이다.

회의가 끝나 黨으로 돌아온 간부들이 설명을들으려는 보도진의 추적을 피해 어디론가 잠적해버린것은 누가보아도 公黨의 간부다운 정정당당한 태도는 아니었다.

試行錯誤를 숨기는것 보다는 솔직히 시인하고 고치겠다는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는것이다.

民正黨의 발표는 「실시시기를 포함하여 모든 문젯점을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실시 시기를 未決로 남겨둠으로써 문제의 終結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있다.

내년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법안에 못박혀 있는 사항을 補完대상에 포함시킨것은 법은 만들어놓고 실시를 연기하는방향으로 갈수밖에 없다는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 시기문제는 앞으로 정부와 民正黨간에 그리고 국회에서 與野黨간에 의견을 조정,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히 국회에서 야당의 정치공세가 만만치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기문제는 앞으로 적잖은 論難을 불러 일으킬것 같다.

법안에는 내년1월1일로 되어있는 시기를 지나치게연기할 경우 실시를 사실상 유보하는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명제가 「有名無實」이란 비난을 면치못할것이다.

국민복지年金法의 경우 74년에 국회를 통과, 제정되었으나 당시 오일·쇼크로 인한 不況때문에 「경기가 회복되면 실시한다」는 약속만남긴채 지금까지 실시가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地方自治法도 비슷한 케이스이다.

公職者倫理法도 재산등록에 따르는 기술상의 문제등으로 정부가 실시를 주춤하는듯한 기색을 보이다가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 부터서도 호통을받은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立法정신에 그치지않고 그정신을 具體化한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그시기를 너무늦추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黨政조정회의는 그들이 지난8월 補完작업을거쳐 확정한 實名制案을 다시검토하기로 스스로 방침을변경했다.

이러한 黨政조정회의의 번복결정은 試行錯誤라는 일면이 있긴 하지만 『잘못된것은 언제나 고칠수있다』는 새로운 정치결정의 스타일을보여준것이며, 한편으로는 정부與黨의 柔軟性을 보여준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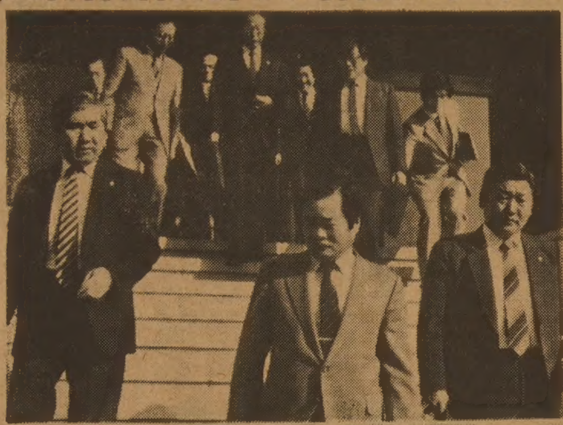
한번 결정된것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던 70년대의 정치스타일과는 다른 일면을 보여준 것이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理想을 향해 출발을 치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쳤을때 民意와 여론을 폭넓게 받아들여 수정하는 자세가 정정당당한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쌓이고쌓인 금융경제의 병폐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를 기대할수 없다는점을 감안하고 7·3조치이후 나타난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결국 拙速을 피하는 연기쪽으로 制動이 걸린셈이다.

앞으로 국회는 實名制의이상과 현실을 조화하고, 「有名無實」이 아닌 實名制가될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떠맡게 됐기때문에 활발한 토론으로 정당과 국회의 活性化가 이뤄질수있을것이라는 부수효과를 기대하는 관측도있다.

【黃昭雄기자】



◇陣痛겪는 實名制 補完 며칠간의 陣痛과 장시간의 黨政정책조정회의끝에 實名制원칙은 일단 살린다는데 의견을모았으나 정부와여당 모두 그렇게 만족한 표정은 아니다. ㊤은회의를 마치고 중앙청후생관을 나서는 黨政간부들, ㊦는회의결과를 발표하는 金瑢泰民正대변인.

## 뿌리내릴 與件조성이 急先務

### 行政·法으로 強行하면 副作用 연쇄반응

### 經濟的인 得과失

經濟政策에 혁명적조치는 금물이다.

인류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경제혁명으로 기록되고있는 산업혁명도 1백년이 걸렸다. 라인江의 기적, 日本경제의 부흥도 1백여년의시간이 걸렸다. 라인江의기적, 日本의 부흥도 그奇기를 찾아 올라가면 비스마르크의鐵血정책, 明治維新이래의 근대화정책에까지 소급해올라간다.

金融去來實名制가 이토록 심각한 파문을 일으킨것은 제도개선을 갑작스런 수법으로 추진하려 했기때문.

자본주의 경제이론의 어느 구석을 찾아보아도 행정력이나 법으로만 경제를 운용하라는 理論模型은 찾아볼수없다. 행정과법으로 경제를 다스리는 사례는 사회주의경제이론에서나 찾아볼수있다.

7·3實名制가 겪고있는 진통은 일부 경제관료들이 행정력과 법만으로 경제를 운용하려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명제를 반대한다고 몰아붙이지는 말자.

새시대의 국가지표인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면 마땅히금융거래실명제도 실현되어야 한다.

다만 수단과방법이 문제다. 무엇보다도 금융거래실명제가 뿌리를 내릴수있는여건이 조성되어야한다.

여건이 성숙되지않은때에 섣부른 개혁안을 제시했다가 낭패하고만 사례는 얼마든지 많다.

경제학교과서는 附價稅의 시행을 경기가 침체했을때, 그리고 선거가 끝난후에 착수하라고 권고하고있다. 附價稅는 조세정의에 합당하는稅金이지만 그세금은 소비자에 전가되고 또 다수국민에게 불편을 주기때문에 호경기때 실시하면 물가가 폭등하고선거전에 시행하면 여당이 국민으로부터 표를 잃는다.

經濟의 論理는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를 하고있다. 실명제는 사회정의에 합당한 제도이다. 다만실명제는 부정한돈과 깨끗한돈의 소재를 파악하고 재산소득에 중과하자는 제도이기때문에 경기를 위축시킨다. 특히 우리경제처럼 떳떳하게얼굴을 내밀고 활보할수없는돈이 돈의흐름에 큰영향을 주는경우는 경기억지작용이 강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모든 금융거래에대해 의무적으로 실명을 밝히도록하면 국민생활에도 불편이 많아진다. 그래서 실명제는 호황기에 그리고 선거가 끝난후에 시행하는것이 경제논리에 합당하다.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과 경기억지작용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데 불필요한 작용만 불러일으킬수있다.

日本이 실명제실시를 보류하고있는데 대해 혹자는 단순히 정치자금때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지만 經濟動物日本人의 경제적 소양을 그렇게 얕잡아보지말자.

우리경제는 지금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답은 자명해진다.

먼저 실명제를 받아들일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실명제가 시행되면 금융자산을 비금융자산(투기자산또는 실물자산)으로 바꾸려한다. 따라서 국민이 계속해서 금융자산을 選好하도록 은행예금, 株式, 社債, 國公債에 대해 인센티브를주어야한다. 이를테면 금리를인상하고 자본시장육성시책을 한층 강화해야한다.

실명제가 정착될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금융자본을 보호함과 아울러 투기의 소지를 봉쇄해야한다.

예컨대 부동산투기를 막고 한시택시의 프리미엄·골프장매입金·금·암달러·골동품등 투기자산에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 금융자산이 투기자산으로 전환(시프트)되는것은 국민경제에 가장나쁜 해악을 끼친다.

불행하게도 7·3실명제는 구상은 좋았지만 실천하기위한 수단과방법은 경제논리에 역행하는 처방이었다. 금리를 자꾸내려놓았기때문에 돈이 은행에 발붙일곳을 잃어버렸다. 자본시장을 의붓자식취급함에따라 돈은 자본시장마저 외면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실명제수정안이 은행예금은 분리과세하면서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강화한 이유가 무엇인가. 6·28조치이래의 국세금융정책은 금융자산은 푸대접하면서 투기자산은 크게 우대한 셈이다.

한편으로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대폭 완화하여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안전판을 제거해버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무절제하게 풀어놓았다. 말하자면 5·18조치와 6·28및 7·3조치는 부동산투기가 재연될수있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이 3개의 조치가交互작용을 일으켜 7·3조치이래의 투기붐을 일으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기시작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와 행정규제를 동원한것은 하늘보고 손으로 눈가리는거나 마찬가지다.

경제정책은 행정과법만으로 다스려지는것은 아니다. 금리·환율·세금·통화와 같은 훌륭한 정책수단이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이같은 수단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움직여나간다. 애덤·스미스는 이것을「보이지않는 손」이라고 말하지않았던가.

만일 경제의 순리를 무시하고 강요에 의해 경제를 움직이려한다면 경제운용은 무리가 생기고 하나의 무리를 막기위한 규제는 또다른 무리와 부작용, 그리고 규제와 억제조처가 뒤따르게된다. 통제경제의 비능률은 부작용과 규제의 악순환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6·28조치와 7·3조치는 행정력과 법으로만경제를 다스리려했다. 금리를 내렸지만 실질금리가 보장되니 예금을 하라, 실명제를 하지만 비밀은 보장해줄테니 정부시책에 따르라, 외화도피를 하는자는 한국에 살의사가 없는 사람이다, 투기가 일어나면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식으로 소리높이 외쳤다. 일부경제관료들의고압적인 PR정책이 그동안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던가.

경제정책은 경제논리에 순응해야한다. 그런의미에서실명제는 시행을 강요할것이아니라 국민이 따르도록 유인해야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관습과 의식개혁이 적응할수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해야한다. 제도개혁은 法만고치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수있지만 국민의 몸에밴관습이나 의식개혁은 오랜시간이 걸린다. 동시에 목표를원대하게 설정하자. 일부관료들이 말하는것처럼 단순히私債를 봉쇄하기위해 실명제를 도입한것이라면그런실명제는 안하는게 좋다. 私債는 금융시장이 정비되고 금리가 자율화되면 절로 없어진다. 실명화가 안된 日本이나 싱가포르에 私債가 극성부린다는 얘기들어보았나.

이제 결론을 내릴때가왔다. 실명제를 시행하자. 그러나 실명제는 강요할것이아니라 국민이 따르도록 유인한다. 또 제도가 정착되도록인내심을갖고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하자. 원래 재무부는 실명제시행을 위한 좋은 복안을 갖고있었다. 지난 5월13일 거액어음사건대책에서는『금융거래실명제도의 이행을 유인하기위해 세제상 實名僞와 假名僞에 차등을두도록 개편』하겠다고 선언했고 6월23일 稅制改革(안)에서는 실명제는 국민의 임의에 맡기되 세율에 차등을 단계적으로 실명화를 유인하고 88~90년에가서는 전면실명제, 전면종합과세를 시행키로했다. 이렇듯 잘돼가던 실명제가 6·28과 7·3조치로 크게 변질되어 부질없는 평지풍파만 일으켰다. 우리모두 독선과아집을 버리고 국민의 예지를 발휘하자.

【朴炳潤기자】

### 메아리

## 대한사람 대한으로

요즘은 애국가를 들을 기회가 많다. 관공서에서 학교에서 TV에서 매일 한번씩은듣게되고 극장이나 영화관에서 자면 기립하여 경건히 경청해야한다. 애국가는 이제式場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게되었다.

애국가가 儀式의 노래였을때는 의례적으로 듣고 넘기는 버릇이있었지만 길가다가도 들리면 서야하고 영화하나를 보자면 반드시 들어야하다보니까 애국가가 귀에 담아진다. 전에는 곡만 들리던것이 차츰 가사도 들린다.

사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애국가의 가사를 너무 흘려들어오지않았나싶다. 부를때도 마찬가지다. 가사 한줄한줄의뜻을 새겨가며 부르고 듣는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 가사는 작사자에 대해 定說이 아직 없지만 1906년경 尹致昊선생이 지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런데 이 가사는 근80년동안 불려오고 있다.

우선 애국가의 제1절만 가지고 생각해보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스코틀랜드의 詩人 로버트·번즈의 戀歌「언제까지나 나는 그대를 사랑하리라, 온바다가 말라버릴때까지, 바위가 햇볕에 녹아없어질때까지」의 표절이 아니냐는 시비도 있었던 이 첫귀절은 내용이 消滅的이라하여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는 「조약돌이 바위가되어 이끼가 낄때까지」라고 나오는데 이 增殖意識과 얼마나 대조적이냐 하는것이다. 하지만 천지개벽이 되어 나라 자체가 없어지기 전에야 동해물이 마를리없고 백두산이 다 닳지는 않을것이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란 귀절도 하필 왜 기독교적인 神의 개념이 들어가느냐고 불만인 사람이 있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 「하느님」은 汎神論的 神이라고 해명되기도 한다. 사실 尹致昊의 원가사는「하나님」이었다.

그보다도 문제는 후렴의 맨 끝귀절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다. 이 귀절의 뜻이 무엇이냐.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까지 애국가를 불러온 사람은 솔직히 손들어보라고 하고 싶다. 시험삼아 국어학자, 소설가, 시인몇사람에게 전화로 물어봤다. 대답은한결같이 『글쎄요, 별로 생각해본적이 없는데요』였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뜻을 생각해보지않고 애국가를 불러온것이다.

年前 書誌학자 安春根씨가 발견해낸 「愛國忠誠歌」는 尹致昊작 보다 앞선 것이어서 현 애국가의 원형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노래의 가사는 제1절이「東海水와 白頭山에 해뜨고 달뜨니」로 시작하여 「대한사람 대한에서 길이 충성하세」로 끝난다. 「대한사람 대한에서」는 語意가 自明한데 「대한으로」가 되면 멍멍해진다.

학교에서 배우자면 애국가는 국민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에 처음 나온다. 그러나 이 음악교과서의 교사지침에는 애국가의 가사 해설에대해 한마디도 언급된것이 없다. 국민학교 3학년 학생에게 「保佑」니 하는 낱말이 나오는 가사를 이해시키기는 어려우니 곡이나 가르쳐 주라는 말이라면 그후 어느 학년엔가에서 애국가를 해설할 시간이 따로 있어야 옳은데 그런 과정이 없다.

金聖佑

<編輯委員>

국민들이 「대한사람 대한으로」의 뜻을 모른것이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학교에서 혹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그뜻을 질문해왔을때 무어라고 대답해야 옳은지 문교부의 편수관리관실에 물었더니 「대한사람이 대한나라로 길이보전하세」라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한다. 하지만 별로 매끈한 「번역」은 아니다. 전화로 문의했던 어떤 학자 한사람은 「대한사람의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했다. 이편이 더 부드럽기는 하다.

하여간 「이」가 빠졌건 「의」가 빠졌건 그 빠진 상태가 자연스럽지않은것은 분명하다. 아무리 縮約된 壽詞의 가사라지만 우리는 古語나 象徵主義의 詩로 애국가를 노래하고 있을수는 없는 노릇이다. 愛國의 신념이 모호한 말로 糊塗될수없다. 한가지 분명한 有權해석을 내려야한다. 정확한뜻도 모르고 거의매일 애국가를 숭숙여 듣고 목청높여 부르고 해온 생각을 하면 부끄럽기전에 분하다.

## 實名制 日誌

### 李·張부부 어음사기事件대책때 첫着案

### 政府·民正國會서실시 時期등 결정키로

▲5·13=정부는 李·張부부 어음사기사건의 대책과 관련, 금융거래를 實名으로 유인하기 위해 金融資產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때 실명과 가명거래에 차등을 두도록 稅制를 개편키로하고 예금·적금비밀보장에관한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

▲6·23=세제개혁 試案서 실명과 가명거래의 차등과세를 83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88~90년사이에 완전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6·25=재무장관등 일부改閣.

▲6·28=金利및 법인세 대폭인하를 골자로한 경제활성화조치 발표.

▲7·3=금융자산 실명거래제 내년실시 발표.

▲7·9=정부·여당 공청회를거쳐실명거래제 보완방침 결정.

▲7·21=韓銀, 금값안정위해 보유금 무제한 매각결정.

▲7·25=실명예금에 관한 비밀을 법으로 보장할것이라고 발표.

▲7·28=私金融을 제도금융으로 양성화하기위해 短資및 신용금고 내년말까지 설립자유화조치.

▲8·10=정부·여당 6·28, 7·3조치공청회개최.

▲8·17=민정당, 가명예금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불문등 보완책발표.

▲8·18=정부·여당 배당소득연3백만원이상만 내년부터 종합과세할것이라고 보완책마련.

▲9·4=소득세·법인세인하및 실명거래와관련, 세법개편 修正案발표.

▲9·20=정기국회개원.

▲10·21=정부, 開浦·果川지구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방침결정.

▲10·25=민정당일부서 실명제 실시보류나 연기주장.

▲10·27=국회재무위 실명거래제 법안 심의착수, 민정당서 실명제 실시 연기 공식거론.

▲10·28=민정당당직자 실명거래제실시여부 대책 구체적으로 협의.

▲10·29=정부·여당연석회의, 국회서 實名去來制내용 보완및 실시일정 결정키로 합의.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 美, 레바논에 대규모 軍援
## 주둔美軍 증원도 검토

【워싱턴AP·UPI=聯合】미국은 레바논정부의 국내 통치력강화와 군사력증강을 돕기위해 대규모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레바논에 주둔중인 미군병력을 늘릴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이날 국방성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레바논정부와 정부군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2만3천명규모의 레바논정부군의 군사력은 현재 필요한 수준에 훨씬 미달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와인버거장관은 또 앞서 레바논주둔 美해병대의 증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외국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평화유지군의 증강이 필요할것』이라면서 『기존평화유지군이외의 다른나라 군대들이 참여할지 모르나 아직은 어떤 나라와도 이문제를 토의한바 없다』고 말함으로써 평화유지군에 참여한 美軍의 숫자가 늘어날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美中東 특사·제마엘會談 모리스·드레이퍼美中東특사(왼쪽)가 28일레바논 바브다의 대통령궁에서 아민·제마엘레바논 대통령(오른쪽)및 샤피크·와잔수상과 이스라엘軍·시리아軍및 팔레스타인게릴라의 레바논철수에 관해 회담하고 있다。【베이루트28日AP聯合】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 中共 대규모 軍개편
### 홍콩紙 陳毅前外相 세력除去

【홍콩=聯合】중공은 지난 9월초 黨제12기전국대표대회(12全大會)를 전후하여 軍總政治部주임과 海軍司令員(사령관)을 경질한 외에도 ①전국의 11大軍區의 일부司令員(軍區사령관) 및 정치위원 ②일부省軍區司令員과 副司令員및 정치위원에 대한 경질도 이미 단행했거나 현재 진행중이라고 홍콩의 유력英字紙 사우드차이나·모닝포스트紙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밖에도 중공이 대륙을 장악하기 직전인 49년1월 제3야전군사령원이었으며 外相으로 재직중 지난72년 사망한 故陳毅계열의 軍部內 세력이 제거되고 있다고 말했다.

## 요르단江 西岸 反이示威 계속

【텔아비브(西紀)=聯合】요르단江서안 이스라엘 점령지의 팔레스타인系 주민들이 28일 투석전을 벌이며 연3일째 反이스라엘 데모를 전개, 이스라엘 어린이 2명이 부상했으며 이스라엘 주민들은 공포를 발사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난동에 맞섰다.

이스라엘 방송은 베들레헴외곽 데헤이샤 난민수용소근처에서 지나가는 승용차에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마구 돌을 던져 유리창이 박살나는 바람에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있던 이스라엘 어린이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 英·西獨頂上회담 防衛力증강 다짐

【본聯合】서독을 방문중인 마거리트·대처 英國수상과 헬무트·콜서독수상은 28일 이곳에서 75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력증강을 위한 그들의 공약을 재다짐했다.

영국소식통들은 동서관계와 서구방위문제가 중점토의된 이날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수상은 소련의 서구겨냥 SS20 중거리핵미사일이 내년까지 철거되지 않을 경우 서구에 미제신형核미사일을 배치키로한 그들의 공약을 재다짐했다고 전했다.

## 海外토픽
### 駐英日本대사 망신

★빠기던 日製승용차 고장나 히라하라·쓰요시 영국주재 일본대사는 28일 자신이 타고다니던 일본제 승용차때문에 망신을 당했다.

히라하라대사는 버밍엄에서 열린 국제자동차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일본의 롤스로이스』로 자처하는 닛산제 최고급승용차를 타고가다가 버밍엄을 48㎞앞둔 도로상에서 차동차가 갑자기 고장나는 바람에 노상에서 허둥대다가 간신히 포드·그라나다승용차를 빌어 타고 박람회장에 도착했는데 이때문에 그는 개막시간보다 1시간반이나 늦었다는 것.

그는 후에 런던으로 돌아올때도 박람회장에 타고갔던 포드차 신세를 졌다.【버밍엄=聯】

◇86서울 아시안게임 심벌마크 서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26일 확정한 86년 아시안게임의 심벌마크. 아시안게임의 이상과 한국 고유의 특색을 조화시켜 번영과 결속, 영원한 전진을 표현했다.

## 시부모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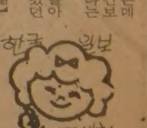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시부모님께선 아직 생활수준이 [illegible]를 하고있는 우리들 때문에 늘 걱정이시다. 시아버님께선 김장 때면 편지를 보내주시며 어머니께선 우리들을 위해 손수담근 김치며 양념이며 생활에 보탬이되는것을 가끔 보내주시곤 한다.

며칠전 우체부 아저씨가 『소포가 왔는데 내용물이 파손되어 배달하기 어려우니 찾아가라』고 통지해주었다. 나는 급하게 찾아가니 플래스틱 통에 넣어서 꼼꼼 묶었는데도 그릇이 깨어져 국물이 포장지에 흥건히 배어있었는데 아빠가 좋아하시는 총각김치였다.

다행히 안에 비닐로싸여서 김치는 깨끗하게먹을수 있었지만 우체국 직원들이 『서울에는 김치가 없으니까?』라고 물어 다같이웃었다.

이토록 친부모처럼 자상하신 시부모님께 평소에 잘 모시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그러나 아빠와 나는 아직도 젊고, 미래에대한 희망은 희망을 품으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있다. 하루 빨리 내집을 마련하고, 시부모님들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여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김노천·서울동대문구 전農洞의18】


한국일보 구독신청 533-2361

# 戰後세계와人物
## 닉슨이 본 激動現代史의 主役들★ <10>

◇혁명지도자였을뿐 아니라 국가건설자였던 네루 인도수상(右)。

## 네루
# 불같은 性格과 知性이 조화이뤄
## 印度독립에 헌신… 第3世界지도자로 각광

인도의 자와할랄·네루수상은 옛크루마나 수카르노와는 다른 인물이었다.

그역시 카리스마적인 혁명지도자였으나 동시에 국가건설자였다。그의 캐시미르에 대한 영토적 망상은 웨스트·이리안땅에 관한 수카르노의 망상과 엇비슷한 것이었다。또 제3세계정치에서 자신의역할에 관심을 기울인나머지 인도국내문제를 종종 소홀히 하는것같았다。

네루는 성미가 급하고 아집이 강한 인간이었다。그는 정열적으로 인도에 헌신했으며 독립과 국가적인 단결이라는 理想을 위해 몸을바쳤다。불행히도 그는 당시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러했듯이 사회주의에매혹돼있었다。인도는 그와 그의딸(現 인디라·간디수상)이 저항의 전통이 있는데다 수백만이 굶주리고있는 인도대륙에 강제적으로 사회주의를 실천하려함으로써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네루는 1889년 지금은 파키스탄령토인 알라하바드에서 태어났다。그의 아버지는 캐시미르의 브라만계급 출신의 富豪로 인도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의 한사람이었다。그의 조상이 캐시미르출신이었던 점이 훗날 캐시미르문제에대해 그가 집착하게된 원인의하나였다。

네루는 영국의 해로우고등학교와 케임브리지大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1912년 영국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인도에 돌아온후 잠시 변호사생활을 했지만 1919년 암리차에서 발생한 영국군의 인도군대학살사건에 분격, 그후 줄곧 인도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마하트마·간디의 제자인 그는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간디보다 더 左傾的이었고 비폭력에는 간디보다덜 집착했다。그는 남에게 비폭력을설교했으나 그자신、또는 인도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사용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칠줄 모르는 遊說家였다。37년 인도총선거에서 그는 국민黨會派의 당수로 22개월에걸쳐 17만6천㎞를 여행했으며 1주일사이에 1백50차례의 연설을 했다。30년대중 네루는 저항운동으로 인해 여러차례 투옥됐다。2차세계대전중에는 영국이 즉각적으로 인도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는한 영국에 협조하지않겠다고 공언한 행동때문에 또다시 투옥됐다。

그는 감옥에서 그의 자서전과 딸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의 세계역사를 포함한 훌륭한 작품을 썼다。終戰과함께 인도대륙을 인도와 파키스탄으로분리하는 협상에참여했다。47년 인도의 초대수상에 취임한 그는 64년 사망때까지 권좌를 장악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세계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네루는 확실히 가장 知性的인 인물속에 포함될것이다。그는 또한 오만하고 남을 무시하며 지독하게 독선적이었다。그는 우월감에 젖어있었고 그것을 감추려하지도 않았다。

내가 79년 멕시코의 쿠에르나바카로 팔레비이란왕을 찾아가 만났을때 팔레비왕은 네루와 다른 인도지도자들이 직면했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팔레비왕은 인도를 中共에 대비시켰다。그는 中共을 단일민족으로 보고있었다。중국은 지방마다 사투리는 있어도 문자는 하나다。中國人들에게는 中共안에서 살건 밖에서 살건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공동체의식이 있다。

반면에 인도는 광대한 인종과 종교、언어의 집합체다。통일된 언어가없어 의회에서 조차 영어로 말해야만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수있다。팔레비왕은 인도대륙에 6대종교가 있고 15개주요 언어외에 수천가지의 방언이 있다는 점、인도의 역사는 너무 복잡해 인종적인 역사또는 집단의 역사는 기록할수조차 없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팔레비왕의 이야기는 인도가 거의 통치 불가능한 나라로 누구든 인도를 뭉치게하는데성공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의 천재란 것이었다。네루가 바로 이일을 해냈다。그는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과 끊임없는 독재유혹에도 불구하고 민주제도의 보전과 발전을 주장했다。

1953년 내가 인도에서 네루를만나기전 일부 사람들은 그가 反美的이라고말했다。다른 사람들은 그가 反英·反白人주의적이라고도 했다。이같은 비난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와의대화를 기초로할때 나는 네루가 단순히 정열적인 親印度주의자 일뿐이라는 故폴·호프만이 내게 들려준말에 공감이갔다。

오랜 反英투쟁과 괴로운 감옥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는 英語를 즐겼으며 더러는 영국에서 휴가를 보내기도했다。

그는 제3세계의 대변자로 비동맹의 설계자로 앞장을 섰지만 언제나 인도가 강대국으로 대접받기를 바라고 있음을 암시했다。자부심이 센 그였기에 인도국민이 영국인들에의해 2등국민 취급을 당했던 점을 그는 매우 분하게 여겼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네루가 뒷날 세계에 보여준 겸손과 오만은 내심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것 같았다。이것은 아마도 네루가 인도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추앙으로 인해 더욱 그랬을 것이다。

30년대 네루인기가 상승하던때 그는 자기 아내와 딸에게 『오!인도의 보석이여、지금이 몇시인가요』『오!희생의 化身이여、빵좀건네주세요』라고 장난스럽게 놀려댔다。

53년 내가 네루를 만났을때 그는 美·印度관계에 대해선 짧게 언급을 했으며 대화의 절반이상을 인도가 직면한 파키스탄의 군사위협에 관한 설교로 소비했다。

비록 그의 말은 인도에대한 파키스탄의 위협에 관심을 표했지만 그의 태도는 18년후 딸간디가 소련군의 지원을 받아 파키스탄을 침공할 것을 예시하고 있었다。나는 이때 미국의 정책을 파키스탄지원쪽으로 기울게 함으로써 이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하는데 한몫을 했던 것이다。돌이켜보면 이것은 네루의큰 약점이었다。그의 부인할수없는 우수한자질과 에너지를 대부분 對파키스탄분쟁에 소모해버렸다。

네루는 아주 능력있고 강인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 있다면 파키스탄문제에 용감히 대처, 평화적으로해결했을 것이다。

◇父傳女傳의 네루父女。네루의 캐시미르땅에 대한 집념은 그의 사후 간디에의해 캐시미르침공으로 나타났다。

## 강제로 社會主義심으려다 시련도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생전에 이를 달성할수 없었다。인도-파키스탄전쟁은 戰後역사에서 가장 무모한 군사적인 지출을 한 비극적인표본이다。수10년을 두고 세계에서가장 가난한 두나라는 매년 수10억달러의 돈을 공산침략위협에 대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를 사들이는데 소비했다。

그러나 우리들의 대화에서 네루는 내가 취할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말했다。그는 인도의 4억인구는 민주주의를 통해 번영과 발전과 정의를 달성키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시 6억인의 中共은 이 목표를 독재체제를통해 달성하고자 했다。

따라서 제3세계로 하여금 공산주의 보다는 민주주의가 낫다는점을 보여주기위해 미국과 서방세계들은 인도의 민주주의가 성공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이같은 그의 주장에는 의도하는바가 있었다。그는보다많은 원조를 요구했다。그요구는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것이기도 했다。인도의 경제적인 곤경이 오래 지속된 원인의 하나는 물론 네루의 사회주의에 대한 집착에 있었다。

中共과 인도는 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경쟁장이라고한 네루의 지적은 사실이지만 인도는 자유기업의 시험장은 아니었다。네루는 감옥에서 마르크스저술을 읽었고 30년대중반에는 사회주의를 설교하면서 노동자 농민조합을 조직할것을 그의 추종자들에게 역설했다。

네루의 사회주의에대한 낭만과 파키스탄의 침공위협에대한 망상은 불행히도 그의 딸에게 물려준 편견가운데 하나였다。

흔히 인도는 「세계최다인구의 민주주의국가」로 불린다。네루는 이렇게 인도를 하나로 단결시켰으며 인도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고 인도의 민주주의를 유지시켰다。

## 次期 스페인首相 곤살레스
### 얼굴
## 온건社會主義者…「변화」주장

이번 총선에서 승리, 스페인 차기수상이 될것이 확실시되고있는 펠리페·곤살레스 사회노동당당수(40)는 이상과 현실을 적절히 배합한 온건사회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75년 故 프란시스코·프랑코 총통사후 3번째실시되는 이번 총선에서 그는『변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근면과 단결만이 조국을 구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곤살레스는 또 사회노동당의 정강정책이 『성공의 패스포트』는 아니지만 16%까지 치솟은 인플레와 2백만실업자들을 없앨수있는 기회를 사회당정부에 달라고 노조와 기업체에 호소해왔다。

그는 스페인정계지도자로서는 드물게 [illegible]에서 태어났다。

그는 남부세비예에서 낙농업에 종사했으며 지금은 마드리드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부인및 아이들 셋과 조촐하게 살고있다。

얼굴이 童顔인 곤살레스는 스페인정치인중에서는 유일하게 성이 아닌 이름이 국민들에게 잘알려져있으며 그가 나타날때마다 군중들은『펠리페 펠리페』라고 외치며 몰려든다。

그러나 그는 선동가는아니며 또한 연설을 할때 좌익성향을 풍기는 언어구사도 하지않는다。

그의 솔직한성격과 예의바른 태도는 기업가들과 판사·관료·軍장교등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좌익지도자로서의 곤살레스를 받아들이게했다。

곤살레스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야심찬 계획은 스페인의 민주주의가 결코 중지되지않는다는 가정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2년전 육군사관학교에서 연설을하겠다고나섰다가 거절당한적이있으나 이제는 우익군부장교들의 쿠데타위협이 실행되지만 않는다면 그는 수상의 자격으로 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을수있게 됐다。

그는 피델·카스트로 쿠바수상이 보내주는 두툼한 시가를 하루에 3~4개비씩피우는 애연가이며 스트레스가 쌓이면 껌을 즐겨씹는다。

평소 허름한 셔츠를 입고 다니다가 선거유세때문에 정장차림을 한 곤살레스는 현 집권자들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서슴치 않는다。【마드리드=UPI】

# 막내린 호메이니時代 이란 政局은 어디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호메이니翁의 시대가 서서히 그 막을 내리고 있는것같다. 금년 나이 82세인 호메이니翁은 건강이 악화되어 두문불출 상태에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와 때맞춰 이란국영 테헤란방송은 호메이니의 후계자를 선출하기위해 전국 각계각층의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가 오는 12월10일 실시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近着 이코노미스트誌에 실린 호메이니 이후의 이란에 대한 기사를 발췌해 본다.【편집자註】

## 「回教革命」의 명분잃고 內紛으로 政情수렁에

호메이니시대 이후의 이란은 앞서 경험한것보다 훨씬 더 힘든길을 가야만 할것같다。회교성직자들에반대하는 좌익무자헤딘게릴라들의 테러행위가 갈수록 증대되고있다。이란중산층과 여성들은 회교혁명이 삶의 평온을 앗아가버렸다고 불평이다。회교혁명의 와중에서 경제활동및 생산이침체되자 도시노동자들도 더이상 혁명을 지지하지 않고있다。일자리를 찾아 도시로이주해온 농민출신하층노동자계급정도가 호메이니의 회교혁명을 지지하고있다。

호메이니의 뒤를 이을 아야톨라(회교의최고성직자)는 혁명적 테러와 회교군중들의 지지만으로 권좌를 유지한다는게 무척 힘들다는것을 알아차릴것이다。

회교성직자 사이의 내분도 심각하다。나이가 많은 보수정통파성직자들은 호메이니가 정치에 깊이 개입한데 대해 불평하며 회교성직자들이 정치에서 손을 떼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한편 호메이니의 가장 강력한 후계자로 지목되고있는 몬타제리등은 회교성직자들이 계속 정치에 간여해야한다고 맞서고있다。

몬타제리는 회교성직자들 사이에서 썩 인기있는 사람이 아니다。

좌익성향을 지닌 회교성직자들은 농지몰수와 기업체및 산업의 많은 부분을 국유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이들은 이란이 소련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어야할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이들은 『마르크스나 레닌은 코란에 규정된 평등사상을 실천에 옮긴 사도들』이라고말하고있다。

호메이니후계자 선출과정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게될보수정통파 성직자와 좌익성향의 급진파 성직자들 사이의 분열상은 이란의모든사회 구석구석까지 파급효과를 미칠것이다。

新蘇적 이란공산당인 투데黨은 벌써부터 좌익급진파회교성직자들의 집합소가 되고있다。

투데黨은 아직 黨勢가 미약하긴 하지만 행정부요직에 많은 당원을 확보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란政情이 혼미상태를 거듭할경우 군부의 발언권이한층 강화될것이다。이란군장성들은 회교성직자들의 정치참여에 반대하고있다。

군부가 지금 당장은 이란-이라크戰에 바빠 정치에개입하지못하고 있지만 호메이니가 죽고 이란政情이내분에 휩싸일경우 본격적으로 정치일선에 뛰어들려할것이다。

호메이니死後의 이란내분은 자칫하면 內戰상태로 번질 요소를 다분히 안고있다。이란이 내전상태에 빠질경우 美·蘇가 틀림없이 개입하게 된다。

소련은 1천5백명이상의 공작요원을 이란에 침투시켜놓고있으며 이란과의 국경지역에 24개 사단을 주둔시켜놓고있다。

소련이 좌익급진파 성직자및 공산세력을 지원하기위해 이란內戰에 개입할경우 미국이 소련에 대항하는 세력을 돕기위해 이란內戰에 개입할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미국은 인구4천만에다가 페르시아만 전략요충의 공산화를 좌시하지 않을것이다。

미국과 소련이 이란내전에 개입하는 형태는 직접개입보다는 제3자를 통한 代理戰성격을 띨 확률이 높다。

이란이 內戰과 혼란의 와중을 벗어날수있는길이 한가지 있을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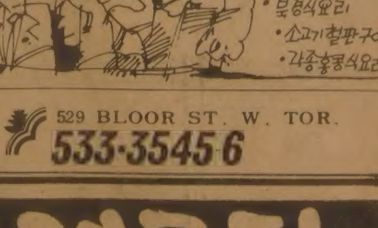
60년전 팔레비왕의 아버지가 했던것처럼 군부가 가장 적당한 시점을 택해 신속한 쿠데타를 성공시키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서구식 교육을 받은 이란의 많은 이상주의 지식인들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이란에서도 가능하다고 굳게 믿어왔다。

팔레비 몰락직전 수상을 지낸 바크티아르나 호메이니아래서 대통령을 지낸바니사드르등이 이들에 포함된다。

이들의 희망은 이란전역을 휩쓸고있는 『비합리성의 광풍』에 의해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렸다。팔레비는 이란에 많은 악의 씨앗을 뿌려놓았다。그러나 팔레비가 신봉한 강력한 중앙정부만이 이란을 구해줄것이라는 신념은 결코 그가뿌린 악의 씨앗이아닌것이다。【英·이코노미스트誌】


## 오리엔탈·파레스




529 BLOOR ST. W. TOR.
533-3545·6

##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 금, 토, 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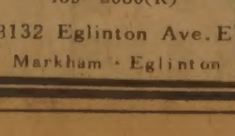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밴 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하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 교또레스트랑

● 사시미 ● 생선초밥 ● 덴뿌라
● 수~토 : 5: 30PM~11: 00PM
일 5 : 30P.M.-10 : 00P.M.
● 월, 화 CLOSED
5304 YONGE ST. (at FINCH) 221-1621
KOTO JAPANESE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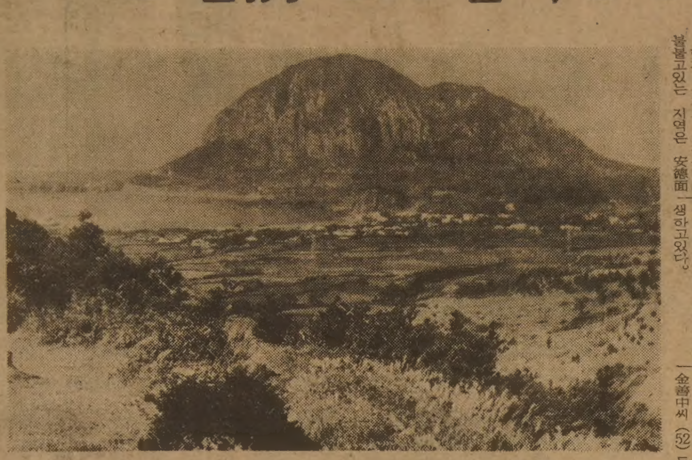
##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 濟州에 부동산 投機바람

## 서울서遠征 林野 마구 사들여
## 1년前 500원이 2~3배나 뛰어



◇전망 좋은곳은 3~4배 서울의 江南을 방불케하는 부동산투기붐의 중심지인 和順항일대。그러나 이 해안가의 땅은 자본가의 손으로 넘어간지 오래고 새로운 투기열은 초원지대로 확산되고있다。

【濟州=金普宗기자】제주도에 최근 3개월째 부동산투기가 계속되고 있다.

주로 서울사람들이 사들이고있는 땅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임야로 70년대초반 일었던 서울자본가에의한 대규모 부동산매입붐에서 다소 살아남았던 제주도 남서부인 南濟州郡安德面과 大靜邑일대가 대상.

이번 토지매입붐은 순전히 투기가 목적이라는점에서 지역개발에 전혀 도움이안되는데다 땅을판 농민들이 이돈으로 생산적인 투자를하는게 아니라 자녀학비나 영농부채를막기에 급급하고있어 앞으로 제주도가안게될 잠재적인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현재 투기가 가장심하게 불붙고있는 지역은 安德面 和順里·德修里·西廣里·東廣里와 大靜邑 仁城里등 천혜의 목초지로 지난3개월동안만 1백만평이상이 서울사람손으로 넘어간것으로 현지부동산업계에선 보고있다. 이에따라 현지주민이나 거래관계자들에의하면 安德面일대에는 마을공동목장이나 문중땅이 아니고는 현지주민소유임야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하고있으며 安德面관계자들도 임야의 80%정도는 서울사람소유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이투기열때문에 1년전만해도 1평에 5백원내외하던 임야가 껑충뛰어 현재는 1천원~1천5백원선에 거래되고있는 실정이다.

투기꾼들은 중개인들에게 『돈은 얼마든지 있다. 전답이나 과수원이 아닌 땅이면 무조건 사달라』는 식으로대들고있으며 같은임야라도 바다가보이는 전망좋은 곳이면 3~4배의 땅값을 내놓기까지 한다는것. 이들이 임야나 잡종지에 눈독을 들이는것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손쉽기 때문이다.

일부 투기꾼들은 밭이나과수원도 마구사들이고 있는데 며칠간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다른사람 이름으로 위장등기하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현지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들 서울의 부동산업자들은 땅을 사들이면서 원소유자에게 『앞으로 5~6년간 땅을 이용해도 좋다. 대신 농갈은것은 그대로 놔두라』는 조건으로 원소유주에게 경지나 목초지로 당분간 이용할수있게 해주기때문에 임야가있는 농가들은 5, 6년후는 어찌되든간에 좋은값에 팔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땅을 앞다퉈 내놓고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부동산붐이 일자 安德面사무소재지인和順里에는 서울의 부동산중개인과 濟州市·西歸浦市의 복덕방사람들및 브로커노릇을 하는 현지주민 10여명등 40~50명이 몰려들어 마치 서울 江南 투기지역을 방불케 하고있다.

서울사람들에 의한 무분별한 투기붐은 지난60년대후반의 감귤과수원매입붐, 70년대초반의 재벌들에의한 목초지매입붐, 70년대중반의 新濟州투기에이은 4번째로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의이익에 전혀 도움이안되는 현상이다.

주민 梁奎宇씨(35·安德面砂溪里청년회장)는 『눈앞의 현금에 현혹당하여 농민들이 마구 땅을팔고있는데 앞으로 제주도가 개발될수록 땅없는 주민의 신세는 머슴살이』라고 개탄하고 브로커노릇을하는 마을주민의 각성을 촉구했다.

大靜邑 新坪里에 거주하는 高모씨(50)는 『1천여평의 목야지를 갖고있는데 주위가 서울사람들에 다팔려 언젠가 통로가 막힐 우려가있다』고 걱정했다. 高씨는 『제주도의 향토인심은 남의농로는 절대 막지않는 것이지만 서울사람이 「그런관습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투기역임야에 널려있는 수많은의 묘소가 앞으로 말썽의 소지를 안고있다.

제주도가 지난80년 초지개발을 목적으로 주재한 3정보이상의 유휴지 소유현황을 보면 제주도민이 9백88정보를 53명이 나눠갖고있고 외래소유자가 1천4백20정보를 69명이 나눠갖고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나 거래관계자들은 국유지를 제외하면 43만 도민이 소유한땅보다 외지인이 갖고있는 땅이 더많고 임야인 경우는 외지인소유가 70~80%가 될것으로 추정하고있고 도청관계자들도 이같은 토지소유현황을 굳이 부인하지않는 실정이다.

제주도에는 현재 34개의 기업목장이 있는데 이시돌목장(5백20만평·매그린지神父)、濟東목장(5백10만평)、城邑목장(2백70만평·李哲熙)、松當목장(3백50만평·鄭勳燮)、南榮목장(2백40만평·南相水)、大元목장(1백만평·薛元植)、유엔목장(1백만평·신엽환)등 1백만평이상 대단위목장소유주는 모두 서울의 재벌자본에 의한것이고 겨우14명만의 토착인이 소규모목장을 소유하고있다.

## 秋收 벼 잇단 盜難
### 麗水 순천

【麗水】전남 麗水 順天지방에서 최근농민들이 땀흘려추수한 벼의도난사고가 자주발생하고있다.

지난 27일 새벽1시~5시사이 昇州郡黃田面琴坪里 張知洙씨(34)와 趙開諾씨(70) 金善中씨(52)등 한마을주민 3명이 탈곡한 벼 34가마를 말리기위해 도로변에야적해두었다가 도난당했으며 지난20일밤 12시부터 다음날새벽 5시사이에도 昇州郡雙岩面新星里 朴成道씨(49)와 金澤一씨(40)가 탈곡한 벼 27가마를 마을앞 南海고속도로부근에 야적해두었다 도난당했다.

또 지난 12일밤에는 麗川郡栗村面여흥리·昇州郡海龍面月田里에서 논바닥에 베어놓은 벼 30여가마가량을훔쳐 달아나던 金福烈씨(29)부부등 4명이 경찰에 붙들리기도했다.【聯】

## 在職 15년안된 退職공무원
## 3년이내 辯護士개업 不許
### 法改正案 국회제출

정부는 29일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자격이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재직기간이 15년에 달하지않을경우 퇴직후 3년이내에 근무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변호사를 개업할수없도록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어부父子 실종
### 漁場설치나간후

【光州】28일 하오7시께 전남 莞島郡藥山面海東里 앞바다에서 어장 설치작업을하던 이마을 權正善씨(36)와 權씨를 따라갔던 아들泰成군(18)이 실종돼 경찰과 주민들이 수색작업을 펴고있다.

權씨는 이날 상오8시께어장설치를 위해 자기소유1·5톤 동력선에 낭장망을 신고 바다에 나갔었는데 밤이 돼도 돌아오지 않아 주민들이 수색작업을 편결과 인근 해상에서 선체만 발견됐다는 것。【聯】

### 韓英洙씨 上告취하

간통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전民韓黨소속 국회의원韓英洙씨(47)가 지난22일 제출했던 상고를 29일 취하했다.

이로써 韓씨에게는 징역1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朴仁淑피고인(36·여)은 2심선고 다음날인 지난22일 상고를 포기, 역시 징역1년이 확정됐다.

# 유명食品에 대장균 득실

## 우유·베이콘등 37품목 制裁
### 地方업체제품 4백64종이 不適格

우유, 베이콘, 소시지등유명메이커의 식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등 식품으로서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29일 금년들어 지난9월말까지 7백여개 식품품목에대해 단속을 실시한결과 그중5·3%에 해당하는 37개품목이 부적합 식품인것으로 밝혀져 2개품목이 허가취소되고 22개품목이 제조정지등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에서 수거검사한 지방소재업체의제품 1만1천70종중 4백64종이 부적격판정을 받았고 그중2백95개품목이 생산정지처분을 받았으며 79개품목이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보사부가 밝혔다.

부적합판정을 받은 유명메이커의 식품가운데 롯데축산의 롯데우유、초코밀우유、롯데사유등 3개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그밖에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서울초코우유、시유등에서도 대장균및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다.

또 크라운식품의 베이콘、한국냉장의 한냉베이콘및 후랑크쏘시지등 축산물가공식품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보사부는 밝혔다.

한편 청량음료메이커인 삼립식품공업의 사과요구르트、삼선산업사의 벌꿀 알프스D등도 유산균수가 부족하거나 보존기준을 초과했다고 보사부는 밝혔다.

또 어육연제품을 생산해내고있는 10개회사의 제품이 과산화물가부적 대장균 양성등의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강압의한 自白
### 證據능력 인정안해

【大邱】검찰에서 자백을 번복하면 불이익이 될것이라는 경찰의 강압때문에 검찰에서도 그대로 진술했을경우 이같은자백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할수없다는 판결이나왔다.

大邱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盧承斗부장판사)는28일 1심에서 징역10년을선고받은 金모피고인(16·경북尙州군恭儉면)에 대한 강간치사죄및 미성년자강제추행죄등에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판시, 金피고인에게 강간치사죄 부분에대해 원심을 파기, 무죄를선고하고 강제추행죄등만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경찰에서 엄한 심문으로 범행사실을 진술한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할경우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는 수사관의 말을 믿은 상태에서 검찰에서 한 진술은 증거능력으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시했다.【聯】

## 20代 패싸움 1명숨져

28일 하오9시40분께 서울 永登浦區永登浦洞4街51 중국집 雅里園앞길에서 姜仁赫씨(24·구두닦이·서울永登浦區堂山洞1街39)등 20대청년 6~7명이 등산용도끼·식칼등을 휘두르며 편싸움을 벌여 姜씨가 머리와 가슴을찔려 그자리에서 숨지고 李英吉씨(22·仁川市北區富平洞950)와 李元寧씨(24·서울永登浦區堂山洞347)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현장을 목격한 李진후군(18·H고3년)에 의하면 제화용칼을 든 姜씨등3명과 식칼·쇠파이프등을든 李英吉씨등 3、4명이 20여분간편싸움을 벌이다 姜씨가 피투성이가 된채 쓰러지자 모두 달아났다는것.

경찰은 달아난 청년가운데 金鍾哲씨(21·경기始興郡君子面長谷1里459)를검거했는데 金씨는 『永登浦洞4街소재 맥주홀 부영회관의관리부장자리가 비어있어 취직하려 했는데 이를안 姜씨등 永登浦일대의 구두닦이들이 전날 찾아와 왜 남의구역을 침범하느냐』며 결투신청을 해와 싸우게됐다고 편싸움경위를 털어놓았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 안개속 高速道路 참사

## 天原 過速트럭, 경운기받아 둘죽고 6명重傷

【天安】29일상오6시20분께 충남天原郡稷山面新葛里京釜고속도로에서 서울에서 大田으로 가던 양양청기화물 경기7사1683호 8톤트럭(운전사 이태식·30)이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에 타고있던 김정호씨(20·天原郡北川面龍頭里23)와 김규성씨(52)등 2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같이 타고있던 양승홍씨(24)등 6명이 중상을 입고 天安 순천향병원과 장신경외과에 분산입원치료를 받고있다.

이날사고는 트럭이 짙은안개속에 과속으로 달리다가 때마침 고장으로 국도에멈춰있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일어났다는 것이다.【聯】

## 재두루미 47년만에 美湖川에 왔다

◇공해에 더럽혀진 山河를피해 달아났던 희귀조 재두루미 (천연기념물203호) 가 옛고향인 충북 淸原郡美湖川일대에 47년만에 다시 나타났다。재두루미 부부한쌍은 추수가끝난 벌판으로 조심스럽게 내려앉았는데 주민들은 이 반가운 새의 원무를 바라보면서 「美湖川유역이 깨끗해졌기 때문」이라고 즐거워했다。【淸州=聯】

## 5行뉴스

◆새마을지도자 體育大會

【龜尾】대통령하사기쟁탈제2회 전국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가 30·31일 이틀간 慶北龜尾市 金烏공고운동장을 비롯, 龜尾공단내 3개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聯】

◆寧越병원·梨大병원結緣

【寧越】강원도립 寧越병원(원장 崔日弘)과 서울梨花여자대학교 부속병원(원장 朴利甲)은 오는11월1일 寧越병원에서 자매결연식을 갖고 앞으로 벽지농촌및 광산지구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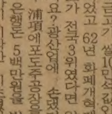
## 수표割引 알선不渡
### 전직 銀行차장수배

서울江西경찰서는 29일 전모은행 阿峴洞지점차장 朴聖在씨(42·서울江西區禾谷洞1073)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보광전기 주식회사상무 이무섭씨를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朴씨는 은행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6월30일 거래선인보광전기(주) 대표 李吉雄씨가 자금에 압박을받자 달아난 李씨를 자신의 친구인 朴潤鎬씨(43·무직·西大門區北加佐洞305)에게 소개해주면서 자신이 보증을서고 2천만원짜리 횡선당좌수표를발행, 朴씨로부터 이자를뺀 1천7백80만원을 할인받게 해줬다는 것이다.

朴潤鎬씨는 이수표가 8월21일 부도가난걸 알고 朴씨를 찾아가 해결해줄 것을 독촉했고 이 사실이 은행에 알려지자 朴씨는 지난달11일사표를 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결이 되지않는데다 李씨마저 종적을감춰버리자 지난달 26일 서울江西경찰서에 고소했었다。

## 「誣告인생」
## 10여년간 40차례 告訴한 李國炯씨
### "어설픈 法지식때문에" 때늦은 改心



10여년간 찰거머리처럼 40여차례의 「고소퍼레이드」를 벌이다 상습무고혐의로 검찰에 구속까지된 李國炯씨(56·서울冠岳區奉天3洞1)가 최근 初志를 꺾었다. 「무고 인생」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선언한것.

구속이 집행되자 담당검사에게 『고소할테니 두고보잔』고 으름장을 놓던 그가 심경변화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전해듣고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 강산이 변해도 그의 「투지」는 불변이라고 느끼고있었기 때문이라나.

그 李씨가 改心을 밝히면서 털어놓은 「무고인생」의 歷程은 이렇다.

『내가 이래봐도 선대때부터 내려온 浦項부잣집니다. 해방을 맞을때 식산은행예금고가 쌀10만석값인 거금70만원이었고 62년 화폐개혁때는 현금보유고가 전국3위였다면 알아볼만하겠지요? 광산에도 손댔다가 좀까먹은후 浦項에포도주공장을 세웠죠. 이때 은행돈 5백만원을 빌어쓴게 빚나가기 시작한 시초였나봅니다. 돈을 못갚아 72년초 담보로 잡혔던 공장대지와 기계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경락자가 묘하게도 돈을 빌렸던 은행의 수위마누라인것이 이상하게 생각됐어요. 더구나 경락자는 미리 경락대금의 1할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돼있는데 법원경매조서에는 보증금란이 공란으로 돼있었거요. 담당 직원은 실수로 적지않았다고 했지만 믿을수가 없었어요』

처음 경매담당판사、집달리、법원서기를 경매부정으로 고소했던李씨는 무혐의결정을 내린 검사를 고소하고 이검사역시 무고하다는 결정을내린 검사를 다시 직무유기로 고소한다는식의 고소퍼레이드를 시작한 것이다.

물론 민사소송도 함께했다. 민사소송도중 은행에서 서류가 없어졌다는 책임을 묶어 은행장등 임직원에 대한 고소도 스무번이나 했다. 『형사가 안풀리면 민사、민사가잘안되면 형사고소식』으로 꼬리를물어갔다.

나중엔 고소통으로 알려져 답답 판검사들이 아예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않는것같아 야속하고 괘씸하고 억울했다.

李씨는 구속된후 2~3일동안은 분을 이기지못해 펄떡펄떡 뛰었다. 그러던 며칠후 돌아가신 어머니를 꿈에 보고 문득 깨달은바가 있었다는 주장. 『나도 내자식 걱정을 해야할때 아닌가…』

『반풍수가 집안망하게한다』는 식으로 어설픈 법률지식때문에 전재산과 장년기를 도둑맞았음을 깨달은 李씨는 다음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계류중이던 민형사28건을 취하했다.

나름대로 「신념」에 살아온 그인만큼 정상참작용으로 쇼를 벌인것은 아닐것이다.【崔奎植기자】

## 당신이 결정합니다

NOV 8TH

시선거일
11월8일 월요일

### 유권자에게 알림

선거일 투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합니다.

모든 유권자는 어디서 투표를 하는지 우편으로 카드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투표소를 기억하십시요.

만약 당신의 거주지가 1982년 10월20일 이후 변경되었다면, 당신은 투표소 또는 전주소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 투표는 일찌

당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투표자들은 오후 5시 이전에 빨리 하십시요.

November 5, 1982

Roy V. Henderson
City Clerk and
Returning Officer.

CITY OF TORONTO


# 최우수선수 金始眞

## 經理團 19승4패1무로 綜合우승

### 實業야구 폐막

◇金始眞

經理團에이스 金始眞이 82년 실업야구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실업야구는 29일 서울운동장서 폐막된 추계리그를 끝으로 82년 시즌을 마감, 국가대표 투수인 金始眞이 최다승, 최고방어율, 최다구원투수로 투수부문 3개상을 휩쓸고 최우수투수상과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우완 정통파 金始眞은 금년시즌 3개 정규리그를 통해 17게임에 출장, 78회를 던져 자책점 16점, 방어율 1.85, 8승(3완투승)을 기록했다。

韓國化粧品의 노장 李海昌은 79타수 37안타, 타율 4할6푼8리로 타격상, 도루 20개로 도루상을 받았다。

經理團의 張孝祚는 25타점으로 타점상을 받았으며 73타수 34안타, 타율 4할6푼6리를 마크, 李海昌에 2리차로 뒤져 타격2위가 되었다。

經理團의 鄭求善은 홈런 9개로 실업야구 홈런왕이 되었다。

經理團은 張孝祚, 鄭求善, 禹京夏, 丁展鎬의 막강타력과 에이스 金始眞의 역투에 힘입어 금년 실업리그서 19승4패1무승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상 ▲최우수선수=金始眞(경리투수) ▲타격상=①李海昌(한화 외야수)(0.468) ②張孝祚(경리 외야수)73타수34안타(0.466) ▲타점상=①梁承虎(상업은)27 ②張孝祚26 ③禹京夏(경리 내야수)23 ▲홈런상=①鄭求善(경리 외야수)9 ▲방어율우수투수=金始眞 방어율1.85 ▲최다승리투수=金始眞 8승1패 金炳日(한화)8승 ▲최다구원투수=金始眞 5게임 ▲도루상=李海昌

# 男子테니스 盧甲澤선풍

## 強豪연파…決勝오른 史上첫 高校生

### 全한국選手權대회의 「무서운10代」

코트밖에서 만나본 盧甲澤(18·마산고3)은 그룹사운드 보니엠을 좋아하는 수줍은 음악팬이었다。『하숙방에 돌아오면 영어, 한문공부에 집중하고 음악으로 피로를 풀죠』

사진기자들의 포즈요청에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는 그의 얼굴에서 테니스스타 盧甲澤의 모습은 찾아 볼수가 없다。

베테랑급 선배들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全한국선수권을 노리는 盧甲澤。紅顔이다。

그는 국가대표출신인 金奉洙(울산공대)와 백전노장 周昌男(대우)을 차례로 꺾음으로써 全한국테니스선수권 37년 사상 고등학생으로는 처음으로 결승전에 오른 무서운 고교생이다。

周昌男과의 준결승전이 벌어진 29일 장충코트를 메운 3백여명의 팬들은 이고교선수의 플레이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자로 잰듯한 정확한 스트로크, 끊어치는 네트앞의 발리。민첩한 볼센스와 어울려 한폭의 그림을 연출했다。

경기를 앞두고 「노장의 노련미」(周昌男)와 「신예의 패기」(盧甲澤)의 대결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고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盧甲澤의 플레이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실업선수와 처음갖는 대결이어서 두려웠지만 周선배도 후배와의 경기에 더 부담을 느낄것이라고 생각했죠』

초반에 기선을 잡으면 이길수있다는 예상이 적중했다고 어른스럽게 말한다。

盧가 라켓을 쥔것은 蔚山第一中 1학년때。

盧仁俊씨(58·蔚山東海國교장)의 2남4녀중 막내로 자라난 盧는 골목에서 배드민턴과 정구공을치고 놀다가 특별활동시간에 우연히 체육교사의 눈에 띄었다。

약3개월간 테니스에만 몰두하던 盧는 학업성적이 떨어지자 어머니(宋一善씨)의 반대에 부딪쳐 한때 테니스를 중단하기도 했었다。

코트의 표범 盧甲澤 남자테니스 10대 돌풍의 주역 盧甲澤。강한 서브, 스트로크가 안정된 공격형선수。

그러나 2학년에 올라가면서 아버지의 제자인 吳현북교사가 부모를 설득, 다시 라켓을잡아 부럭부럭성장했다。

지금까지 남과 주먹다짐한번 해본적이 없는 온순한 성격이지만 절대 남에게 지기싫어하는 고집도 있다。

그의 특징은 뛰어난 볼센스와 완벽한 기본기에 바탕을둔 올라운드 플레이。

일단 네트로 대시하면 볼이 오기전에 먼저 발리를 시도, 좀처럼 상대편에 패싱을 허용하지 않으며 상대의허점을 노리는 발리는 일품이다。

중2때는 소년체전서 慶南대표로 금메달을 땄고 3학년때는 전국종별대회서 우승을했다。80년 테니스의 명문 馬山高로 진학, 연맹별대회(16세)서 우승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4월에는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남자단식의 패권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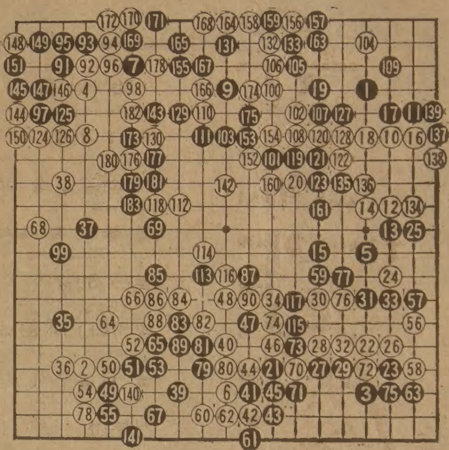
盧는 1년을 하루도거르지않고 오전수업을 마치면 학교뒤 舞鶴山일주훈련을 시작으로하루 4시간씩 연습하고 혼자 외국잡지를 보며 기술을 익혔다。

馬山高의 閔昌植코치(44)는 『1m74, 72kg의 알맞은체구에 볼센스나 발놀림이 좋으나 서브가 파워에 비해 정확하지 못한게 흠이다。대표선수가 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兪奭根기자】

# 棋聖位쟁취 최대목표

## 趙治勳名人 오오다께에 4승1패 타이틀방어

### "天下統一 制動걸棋士 없을듯" 日棋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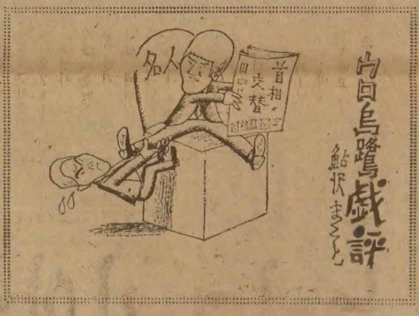

◇제7기 名人戰 5국 總譜(1~183)
黑 名人 趙治勳9단(4승1패) 白 도전자 大竹英雄9단(1승4패)
〈黑5집반공제 제한시간 각9시간〉※162는 156의곳

◇…趙治勳名人은 금년들어 本因坊에이어 名人타이틀을 모두 지킴으로써 새삼 日本바둑의 정상임을 확인했다。趙名人은 27~28일 이틀간 시즈오까(靜岡)縣 이또(伊東)市에서 열린 제7기 名人戰7번승부 제5국에서 도전자 오오다께(大竹英雄)9단을 집흑으로 1백83수만에 불계로눌리침으로써 4승1패로 名人位를 방어한것이다。

日本바둑계는 趙名人이 지난여름 고바야시(小林光一)9단과의 本因坊타이틀방어전에서 4승2패로 역전승하자 『이제 趙名人의 天下統一에 제동을 걸 기사가 없지않을까?』하고 내심 걱정했었다。그러다 棋聖戰타이틀전에서 도전자인 趙名人을 3승2패로 꺾고 뒤이어 名人타이틀에 도전하는 오오다께 9단에게 기대를 걸었다。그러나 名人戰에서 맞선 오오다께9단은 너무도 무력하게 물러나고 말았다。趙名人은 破竹의 3연승을 거두었는데 그것이 모두 압도적인 불계승이었다。不計勝을 더 높이 쳐주지않는 프로바둑이라지만 여기에는 현격한 실력차이같은것을 실감케했다。오오다께9단은 제4국에서 이겨 영패는 면했지만 이 대국도 바둑내용에서 趙名人이 압도했으며 오직 방심의 실착을 범했다는것이 주위의 평이었다。

따라서 趙名人의 현재 목표는 日本최대의 타이틀인 棋聖位의 쟁취다。도전자를 토너먼트로 뽑는 방식이어서 1패만해도 안되는 방식인데다 운이 없었던지 지금까지 趙名人은 후지사와(藤澤秀行)棋聖에게 도전도 못하고 물러났다。그는 28일 名人타이틀을 방어한뒤의 기자회견에서 제1성으로 『日本최대의 타이틀인 棋聖位를 쟁취하기위해 초심자처럼 싸우겠다』고 결의를 보였다。

화제의 제7기 棋聖戰토너먼트는 지난19일 名古屋과 大阪에서 동시에열려 趙名人라이벌인 고바야시9단이 石井邦生9단을 물리쳤고 羽根泰正9단은 牛之濱撮雄9단을 물리쳤다。趙名人은 부전승으로 준준결승에올라 羽根9단과 대결하게되며 여기서 이기면 林海峯9단과 石田芳夫9단의 승자와 준결승을 갖게된다。【梁平기자】




◇日本의 바둑잡지 「週刊碁」는 바둑풍자만화 烏鷺戲評에서 名人戰의 전황을 首相교체와 결부시키고있다。「名人交替는 없다」는 타이틀아래 趙名人은 『그정도가지고는 아직 어림도 없다네』하고 오오다께9단을 비웃고있다。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54〉

朴婉緒 作 金光培 畫

### 안개속의집 ㉑

수지는 뭐가 그렇게 우수운지 킬킬대며 이렇게 수다를 떨었다。말끝마다 그도 계속해서 웃음이 폭발쳤다。그녀는 잠자리의 부드러운 어둠속에서 요염한 웃음을 웃으며 떠다니는 자신의 붉은 입술을 보고 있었다。

『아냐, 그럼 친구가 아냐。실은 친구도 아니지。내 소개로 여기 저기 하청을 맡아서 돈좀 벌게된 사이니까 나라면 벌벌 매개돼있는셈。최저가로 해줄거야』

『돈만 싸게 먹히면 뭘해요。정작 기술자를 잘 만나야지』

수지는 은밀히 호흡을 조절해가며 짐짓 시들하게 말했다。

『여부가 있나。그 친구가 데리고있는 기술자라면 다 일류거야。전에도 자기네 가게에서 제일 높은 기술자를 보냈다던데!』

『어머머 그 업자이가…』수지는 들은 소리를 내면서 가까스로 복받치는 웃음을 삼켰다。유쾌한 요절복통기도 하고 작은 악마같기도 한 게 그녀의 핏줄기를 타고 장난을 치는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토담토담한 대목에서 웃음이 났고, 수상한 예감으로 오싹오싹 소름이 돋게 즐거웠다。

『왜 그 기술자가 마음에 안들더까?』

『아, 아녜요。사람이 너무 못생기고 어리숙해 보여서요。말주변도 없고…』

『말발 센 작자수록 솜씨는 형편없기 일쑤라구。그렇지만 당신이 싫다면 딴 사람 보내래두 돼。그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니까』

『괜찮아요。이왕이면 제일 높은 기술자한테 하죠 뭐』

기사주임 유일환, 기사주임 유일환…。

대학교때 인재하고 어울려 보러가던 연극의 제목처럼 그 말속엔 미지의 것에 대한 심그러운 예감이 가득했다。

『그럼 떠나기전에 그 친구한테 전화걸어서 아주 도급으로 맡기도록 하리다』

『어머머… 그러니까 엄펑땅 당신 없는 동안에 나더러 집수리를 하란 말이군요?』

수지는 복받치는 환성을 교묘하게 비명으로 바꾸어 이렇게 소리쳤다。

『당신도 알잖아, 나 집수리라면 질색인거』

『하긴 남자들은 대개가 다 그렇게 이기적인가봐요。제 친구중에도 남편이 외국 나가있는 동안 집수리하는 애가 많아요。하다못해 도배를 하려도 남편은 여행보내는 친구도 있는걸요』

『이해해줘서 고맙군』

그리고나서 수지는 기욱이 안아주길 기다렸다。그가 안아만준다면 여지껏과는 전혀 다르게 전혀 새롭게 반응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부시시 돌아누워서 곧 코를 골았다。

석달동안의 부재를 앞둔 전날밤이기 때문일까? 수지의 마음은 서운하게 설렜다。그의 부재중에 일어나기를 꿈꾸는 엉뚱하고 불순한 기대와는 얼토당토않은 이런 못한 느낌은 수지자신도 뜻밖이었고 이해할수 없는거였다。

기욱이 수지를 자주 안지않은지는 오래였다。아주 가끔 욕망 그자체에 몰려 아내를 안는다는건 당하는 아내쪽에서도 결코 유쾌한 일이 못됐다。가장 악랄한 모욕이었다。게다가 목석같다느니 얼음장같다느니하는 야비한 품평으로 모욕위에 모욕을 가하는 일도 서슴지않았다。수지라고 할말이 없는게 아니었다。그가 짐승처럼 구니까 목석이되어, 얼음장이 되어 자기방어를 한다고 생각했다。

## 84년 LA올림픽 蘇, 보이코트안해

【東京UPI=聯合】蘇聯은 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를 보이코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한국일보詩壇

### 가을 산

李東倫

깊은 골 바위 위에
포개 앉아 눈감으면
못자라도 마음결도
울긋불긋 물이 든다
소리쳐 흐리 예는 물
그도 갈길 있고 있다
웃음소리 발자국 소리
온 산천 붐비는 소리,
산새도 놀라 달아난
와자한 숲길에서
밀리는 고독을 안고
나도 한잎 단풍이 된다。
휘구름이 자릴 펴면
멍달아 치는 쭉악,
이 산천 이 목숨이
빨갛게 타는 사랑,
온 누리 갈빛에 젖어
함께 붉고 싶어라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Special Offer
WORLD BOOK
어린이를 위한 "CHILD CRAFT"

29,000이상의 사진·그림·지도및 챠트포함
22권 World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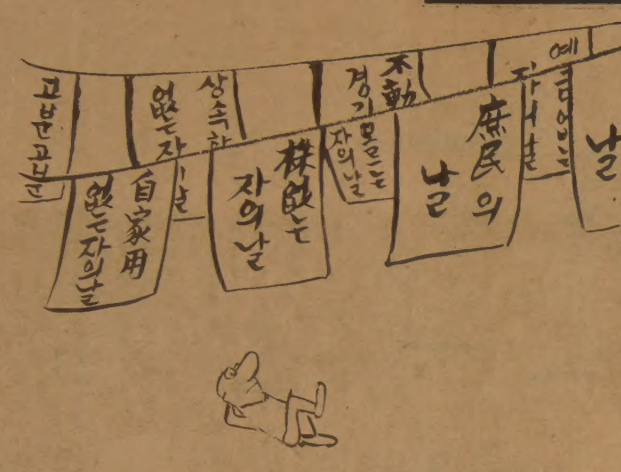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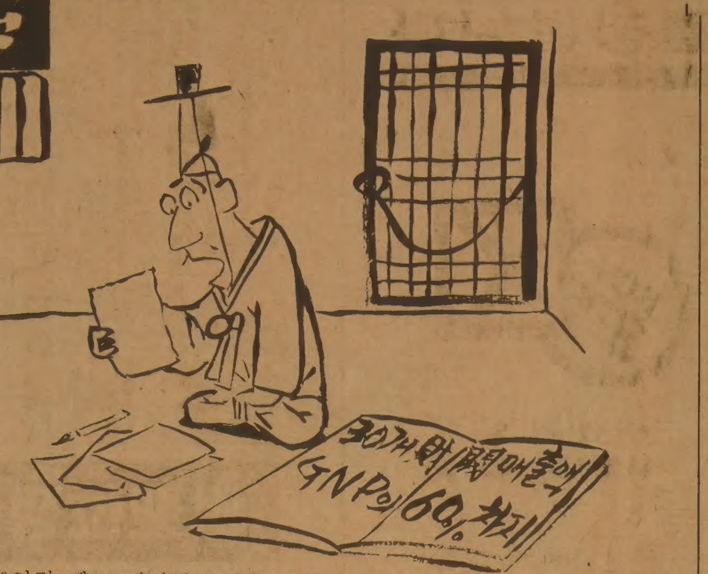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 안의섭 時事칼럼




「이런 날」도 있으면 좋겠다…




"이걸 빼고 계산해 보니까 1인당 GNP가 겨우…"

## 사건記者 수첩

#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려 누이고 사위가 장인 치고…

### 신문에 안난 現場

30대의 젊은 며느리가 노쇠한 7순의 시어머니를 때려 누이고, 20대 팔팔한 사위가 69세의 장인을 치곤 각각 쇠고랑을 찼다。 그런가 하면 시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놓고 부부싸움끝에 남편 앞에서 극약을 제입에 털어넣은 30살의 주부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한심한 세태다。 패륜과 극단적 이기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분노를 금할수가 없다。 이번주「기자수첩」은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20대의 여호와의 증인, 트럭 10대를 훔쳐 폐차장에 판 트럭절도 등도 메모됐다。

### 길가다 케이블맞아 중상

▲지난12일하오7시40분께 서울중구태평로2가 프라자호텔옆 지하철2호선 6~8공구(시공자 대림산업) 공사장 옆에서 현대중건설소속 서울07-1605호 크레인(운전사 林炳洙·27)이 길가 전주사이의 연결케이블을 끊는 바람에 공사장옆 횡단보도를 건너던 李甲仙양(19·회사원·경기도남양주군구리읍인창4리산12)이 끊어진 케이블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고 옆에 있던 장윤심양(23·회사원·안양시석수동 주공아파트)이 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크레인 운전기사 林씨가 서소문에서 공사장쪽으로 가다가 운전부주의로 전주케이블을 끊자 마침 근처를 지나던 서울3나8211호 포니승용차(운전사 李常植·30)가 길가에 늘어져있는 케이블을 퉁기면서 길가던 李양의 머리를 때려 일어났다。 李양은 서울대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

▲서울관악경찰서는 15일 완구용권총과 과도로 위협, 금품을 빼앗아온 조모(16·폭력전과1범·서울 동작구동작동) 朴모(16·특수강도전과1범·동작구사당동)등 4명을 특수강도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閔모군(16·강남구 반포동)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9월27일하오7시반께 서울강남구서초동 동신아파트1동505호金仁淑씨(37)집에 침입, 혼자 집을 보고있던 金씨를 완구용권총과 과도로 위협하고 현금90만원과 시계1개(싯가8만5천원상당)를 빼앗아 달아나는등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2백4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털어왔다는것。

▲지난13일하오3시5분께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면회실앞 잔디밭에서 金석범씨(42·남대문시장 의류상가1층2호 숙녀복코너주인)가 1ℓ짜리 플래스틱통에 들어있는 석유를 온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꾀했으나 국회경비대근무 전경대원 윤석기상경에게 발견돼 제지됐다。

金씨는『자신이 임대계약을 해 영업을 하던 숙녀복코너가 명도소송에 걸려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돼 국회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위해 자살하려 했다』고 말했다。

### 예비군훈련 거부하는 20대 여호와의증인

#### 媤母문제로 부부싸움끝에 飮毒자살한 아내도

▲서울강동경찰서는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尹相馬씨(23·공원·강동구마천동50의4)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충역인 尹씨는 지난4월12일 1·4분기 향방훈련소집통보서를 받고도「여호와의 증인신도는 총칼을 만칠수없다」는 이유로 훈련에 무단불참한것을 비롯, 보충교육、감사등 4차례의 예비군훈련통지서를 받고도 계속 훈련에 참가하지않았다는것。

尹씨는 지난80년9월 방위소집대상에서 소집면제자인 보충역으로 역종이 바뀌었는데 尹씨는 지난81년2월부터 친구의 권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는것。

경찰진술에서 尹씨는『금년들어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서 앞으로도 예비군훈련에는 계속 불참할 것이라고 큰소리。

<삽화·權大雄>

▲서울노량진경찰서는 지난15일 玄錫근씨(여·33·서울영등포구 신길1동456의10)를 존속 폭행치상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玄여인은 지난9월26일 하오7시께 자기집에서 시어머니 柳順錄씨(71)와 말다툼을 하다 柳노인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든 다음 마룻바닥에 쓰러뜨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 딴살림차리고 장인구타

▲서울성북경찰서는 장인을 때려 중상을 입힌 朴銓龍씨(29·회사원·서울서대문구충정로3가)를 존속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韓모여인(28)과 79년4월 결혼해서 두 자녀까지 둔 朴씨는 지난7월부터 서울성북구정릉4동301의1에서 白모여인(29)과 살림을 차렸는데 17일밤10시40분께 白여인집으로 찾아간 장인 한효연씨(69)로부터 꾸중을 듣자『참견할것 없다』면서 얼굴등을 마구 때렸다는것。

사위에게 맞아 병원에 입원한 한씨는『사위를 잘못둬 호강은 커녕 폭행까지 당했다』며 몹쓸사위를 새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경찰에 호소。

▲18일낮12시께 서울 성북구하월곡동37의21 李永洙씨(31·회사원)집에서 李씨의 부인 朴순선씨(30)가 부부싸움끝에 극약을 먹고 실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숨진 朴여인은 이날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를 놓고 남편 李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다 李씨가『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려면 이혼을 하자』며 짐을 싸들고 집을 나서려하자 李씨앞을 가로막고 극약을 먹었다는 것이다。

남편 李씨는『형님집에서 살아온 어머니가 큰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신세를 한탄하는것을 보고 둘째아들인 나라도 어머니를 모시려 한것이 이렇게 됐다』며 울먹였다。

▲18일하오8시40분께 서울관악구신림11동202의2 미도아파트22동304호 金연호씨(31·여)집 안방에서 金씨의 생후 5개월된 아들 상진군이 이불위에 엎드린채 숨져있는 것을 金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金씨에 따르면 이날 하오8시20분께 밖에서 놀고있던 딸 지연양(5)을 데리러 나갔다가 돌아와보니 상진군이 캐시밀론 이불위에 얼굴을 파묻은채 숨져 있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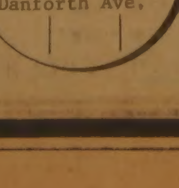
경찰은 상진군이 이불에 엎드려 잠자다 질식해서 숨진것으로 보고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정릉3동 마을금고 이성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내고향 통닭집
•칼국수 •오뎅 •통만두
☎537-0432
658½ BLOOR ST. W.

코리아·저널 창간 제10주년기념
한인친선탁구대회
일 시 : 1982년11월27일(토) 오전9시
장 소 : 994 Carlow Ave.,〈웨스트·우드 쥬니어고등학교〉
(Carlaw Ave. × West wood Ave.)
종 목 : ● 개인전(남·녀) : 대표팀, O.B. 팀(만35세이상)
●복식 ●단체전
회 비 : 단체전 : $30.- 개인전 : $5.- 복식전 : $7.-
상 품 : 각 종별 부문 우승, 준우승 트로피
주관 : 캐나다 탁구협회
주최 : 코리아·저널신문사



봉학농장
무 : $8.00
배추 : $5.00(60Lbs짜리 큰 박스)
총각무, 파, 시금치, 왜무
5개이상 주문시 배달합니다.
김장용·무·배추세일
농장 : 1-775-6256
시내 : 248-6389

광고신청은
광고부로….
토론토 한국일보 : 533-2361~4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 정확히 맡은바 정성껏 여러분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 「신문에 안난 現場」

# 松炭·平澤기지촌 무허여권알선업소 수수료 횡포

## 장소옮기며 봉제공장차려 여공임금 착취타 구속

사장 정선홍씨(56)를 업무상배임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7월 원용환씨(41·성북구돈암2동605)가 정기예금으로 예입한 1천만원을 입금시키지 않고 예탁증서만 교부한뒤 이 돈을 마을금고직영 슈퍼마키트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다。

### 회사내고 TV사기

▲서울서대문경찰서는 金載圭씨(37·서울용산구동부이촌동301의152)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陳載表씨(3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72의6 동아빌딩309호에 한암실업이란 회사를 차려 金씨는 대표로、陳씨는 관리과장으로 행세하며 지난4월24일하오2시께 서울종로구교북동12 삼성전자 대리점에 찾아가 가공인물 8명의 이름을 적어주면서 자기회사 직원이라고 속여 계약금 14만5천원에 14인치컬러TV 8대를 인수、시중에 내다파는등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2대의 컬러TV를 빼내 1천2백25만원을 가로챘다는것이다。

▲기지촌인 경기도 송탄시와 평택군 팽성읍 안정리 일대에 외국인 상대의 직업여성들을 대상으로 허가도 없이 해외이주와 국제결혼수속을 대행해 주는 무허가업소가 난립、부당한 요금을 받는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현재 해외이주와 국제결혼수속업무는 보건사회부의 허가를 받은 한국해외이주개발공사와 범흥공사、삼양이주공사、남미이주공사등 4개법인체의 본사와 지방 대행사무소에서만 취급토록 돼 있으며 기지촌인 송탄시와 안정리에도 이들 법인체의 대행사무소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외국어번역행정서사 자격증을 갖거나 이마저 없는 무자격자들이 오피스란 간판을 내걸고 직업여성들을 상대로 영문편지번역 대서를 해주는 한편、불법으로 국제결혼과 여권수속을 알선해주고 있다。

이들 무허업소는 보사부규정에 따라 결혼 수속에 1백50달러、여권수속에 40달러등을 받도록 돼 있으나 직업여성들이 해외이주 관계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갖은 명목으로 규정보다 많은 요금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

▲노동부 서울 북부지방사무소는 성광실업대표 李光鎬씨(30·서울은평구응암동588의14)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소규모봉재 하청업을 해온 李씨는 지난6월 趙明淑양(18·서울도봉구미아3동234의16)등 종업원 12명의 임금 4백39만2천원을 지급치 않고 달아난 후 다시 서울도봉구미아3동에 성광실업이란 회사를 설립、경영하면서 종업원 30명의 7~9월분 임금 8백5만3천원과 해고한 12명의 임금및 해고수당을 한푼도 지급치 않는 등 모두 1천6백3만4천원을 체불하고 행방을 감췄었다는 것이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6일 安永鎬씨(33·주거부정)를 상습절도혐의로、韓華重씨(29·광주시 유동118의3)를 장물취득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安씨는 지난9일밤9시께 서울용산구효창동196의3 골목길에 세워둔 의양기업소속 경기7아7997호트럭(운전사 李相泰·29)을 운전사 李씨가 자리를 비운사이 몰래 몰고 달아난것을 비롯、지난7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0대의 트럭을 훔쳐 광주시내 삼육폐차장주인 韓씨에게 1대당 20만~30만원씩 받고 팔아온 혐의다。

▲지난19일 새벽 2시40분께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1 서울아파트2동 12층3호 황장현씨(47)집 건넌방에서 黃씨의 딸 낙희양(20·홍익대2년)이 촛불을 켜고 공부하다 잠든 사이 초가 넘어져 불이나는 바람에 낙희양이 중화상을 입고 4평짜리 방이 전소해 1백50만원의 피해까지 입었다。

▲서울시경은 대우실업(서울江南區清潭洞72)대표이사 李德英씨(60·서울城北區松亭洞72의4)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6월4일 용산구한강로1가에 있는 동심다방에서 사업관계로 알게된 金원경씨(44·서울동작구사당동316)에게 『뉴코리아 골프장(경기도고양군중면일산리649)회장과는 사돈지간이니 골프장회원권을 싸게 사주겠다』고 속여 金씨로부터 회원권2장 대금조로 1차5백만원을 받아낸후 같은달 말께 5백만원등 모두 1천만원을 받고서도 회원권을 사주지않은 혐의다。

## 사건記者 수첩

# 鐵原 인삼·콩밭망친 꿩떼 사냥허가 호소

# 신원미상 70老婆 빈 돼지우리서 시체로

▲강원도철원군근남면사곡리와 갈말읍 신천원3리 일대에 최근 수백마리의 꿩떼가 나타나 콩·옥수수·인삼등을 닥치는대로 쪼아먹는등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19일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13일께부터 3백여마리의 꿩떼가 나타나 갈말읍신철원3리金中錫씨(50)의 인삼밭 1만3천평과近南面沙谷里 李銀炅씨(53)의 인삼밭 1만5천평을 망쳐놓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꿩떼들은 땅속에서 싹터 올라오는 인삼햇순을 닥치는 대로 쪼아먹고 있어 인삼밭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주민들은 『수렵을 일부허가해서라도 피해를 막아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지검수사과는 서울중부세무서 법인세1과주사보 金의택씨(39)와 張택순씨(24)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이들에게 돈을 준 전 동국전자총무부장 李榮幸씨(41)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張씨는 지난해12월 동국전자주식회사에 대해 80년도분 원천세를 조사하면서 이 회사 총무부장 李씨로부터 『적발된 세액을 낮춰달라』는 부탁과함께 2백만원을 받았다는것。

金씨는 또 지난4월에도 이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정조사를 하면서도 1백만원을 받은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 만기출소후 또구속

▲서울영등포경찰서는 金庾男씨(26·전과5범·경기시흥군소래면옥길리산103)金同根씨(30·전과4범·서울종로구청운동산4의25)등 4명을 상습절도및 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다 알게된 사이로 금년6월·만기출소한후 범행을 모의、지난12일 상오8시께 서울구로구구로동 버스정류장부근을 지나는 119번 시내버스안에서 40대남자승객의 양복 저고리 속에든 현금 5만원을 소매치기한것을 비롯、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3백여만원을소매치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동안 소매치기한 돈으로 각자의 집을 돌아가면서 「고스톱」판을 벌여오다 지난15일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그동안의 범행이 드러났다。

▲지난18일상오8시40분께 서울강동구신천동337 金春吉씨(58)집 빈 돼지우리안에서 신원미상의 70세쯤 된 할머니가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된채 숨져있는것을 집주인 金씨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金씨는 이날 닭모이를 준 뒤 방으로 들어가던중 돼지우리밖에 여자슬리퍼가 놓여있어 이상히 여기고 우리안을 들여다보니 이 할머니가 옷이 벗겨진채 숨져 있더라는것。

경찰은 돼지우리밖에 버려져 있는 흰색스웨터와 감색바탕에 흰꽃무늬의 치마로 이 노파의 신원을 수배하는 한편 인근우범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있다。 〈정리＝姜升達기자〉

## 살림의 지혜

### 맛있는 생선구이

가자미·전갱이따위의 껍질이 얇고 수분이 많은 생선은 석쇠에 살이 눌어 붙어 잘 떼어지지 않는다。、이것을 억지로 떼면 껍질이 벗겨져서 모양이 나빠진다。이럴 때는 석쇠에 식용유를 발라 기름냄새가 없어질때까지 달군 다음 생선을 얹고 표면이 되는 쪽부터 구워낸다。작은 생선은 센 불에도 구워지지만 살이 두꺼운 생선은 약한 불에서 충분히 오랜 시간 천천히 익힌다。또 비린 생선은 생선에 식초를 바르고 구우면 비린내가 나지 않고 맛이 있으며 생선이 들러붙지도 않는다。

### 병 깨끗이 씻기

병속은 깨끗이닦기가 어렵다。이럴 때는 달걀껍질을 부숴 넣고 물을 조금 넣은 다음 병을 흔들면 깨끗하게 씻긴다。

또 모래나 신문지를 비눗물과 함께 넣고 흔들어도 같은 효과가 난다。

기름기가 있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 비누를 진하게 타서 가득 담아 30분쯤 두었다가 병솔을 가지고 닦으면 깨끗해진다。

### 프라이팬 냄새제거

생선등 비린것을 튀겨낸 프라이팬엔 이상한 냄새가 남아 있어 다음번 조리하는 음식에 냄새를 옮기게되어 제맛이 나지 않는다。

이런 땐 생선을 튀긴뒤 제일 마지막에 양파를 튀겨내면 냄새를 흡수해버려 깨끗해진다。

### 두부 다루기

두부는 부스러지기 쉬운 식품이다。이럴땐 요리하기 전에 소금을 조금 탄 물에 20분정도 담갔다 다루면 여간해선 부서지지 않는다。

졸일땐 먼저 살짝 데쳐낸뒤에 쓰면 간이 속까지 배어들고 맛도 더 난다。빠른 시간내에 끓여내야 맛이 있다。

### 벽에그린 크레파스 지우기

벽에 그려 놓은 크레파스 낙서는 잘 지워지지가 않는다。이럴 땐 휘발유로 지우거나 암모니아와 알콜을 반반씩 섞어 이것을 2배의 물에 타 헝겊에 묻혀 문지르면 대개 지워진다。

아무리해도 지워지지 않으면 고운 샌드 페이퍼로 문질러서 지우면 된다。

### 기름얼룩제거

기름이 묻은 부분에 쌀겨를 3~4㎝두께로 뿌리고 그위에 신문지를 깐 다음 다리미를 뜨겁게 하여 5분간 눌러두었다가 쌀겨를 털어내고 물수건으로 얼룩을 닦아내면 깨끗하게 없어진다。

쌀겨가 없을 때는 물수건에 레먼즙을 묻혀 닦거나 식초를 묻혀 닦아내도 된다。

### 유리창 손질

불투명한 유리(젖빛유리)는 빛을 70~80%정도 투과시키지만 투명한 유리도 때가 끼면 투과율이 50%이하로 떨어진다。유리창을 부지런히 닦지 않으면 더러워져서 흐려지고、때가 끼면 잘 지워지지도 않는다。

평소엔 물걸레로 닦지만 먼지가 끼면 중성 세제를 탄 물에 걸레를 담가 꽉 짜서 닦은뒤 마른 걸레로 닦는다。

연필로 낙서한 자국은 지우개로 지우든지、치약을 헝겊이나 칫솔에 묻혀서 문지르거나 닦으면 지워진다。

그런 다음 마른 걸레로 닦는다。유리로 만든 기구도 이런 방법으로 닦아낸다。

### 단단한 나무에 못 박기

단단한 나무에 못을 박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이런 경우 처음엔 가볍게 망치질을 해 못자국을 낸 다음 그 구멍과 못끝에 기름을 바른다。

그런 다음 못을 박으면 못이 휘지도 않고 잘 들어간다。기름이 없으면 비누칠을 해도 효과가 있다。


## 당신이 결정합니다

NOV 8TH

시 선거
월요일
11월 8일

### 투표자격

다음과 같을 경우, 당신은 토론토시에서 투표 할 자격이 있읍니다:

◉당신이 카나다시민이거나 영국국민일 경우:

◉11월8일이전에 만18세가 되거나 이상일때:

—1982년9월7일부터 10월20일사이에 토론토시에서 살았을때,

—당신이나 배우자가 살지는 않았으나 토론토시내 대지주인 이거나 차주일때,

★만약 당신이름이 잘못된 투표자명단에 있더라도, 당신은 투표할 자격이 없읍니다.

★만약 당신이 자격있는 투표자이나, 이름이 투표자명단에 없을 경우 당신은 시정의 계원이나,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 관리원으로부터 투표자격증을 얻어 투표할 수 있읍니다. 정당한 신분증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민권을 1982년 10월21일이후 받았더라도, 투표자격이 있으나, 위 사항의 얘기처럼 투표자격증을 얻을 수 있읍니다. 이때 시민권을 꼭 제시해야 합니다.

### 이 경우는 법에 어긋납니다.

—자격이 없으면서 투표를 한다거나,
—투표를 1번이상 할 경우,
—투표할 장소 외에서 투표 할 경우.

위의 경우 당신이 범법행위가 인정됐을 경우 2,000불이내에서 벌금을 물으며, 6개월이내에 형무소에 금고형을 받습니다.

*수정된 시 선거법(1980)

Roy V. Henderson
City Clerk and
Returning Officer

CITY OF TORONTO

◇「침략전선」

◇「호메스」

◇「흑과 백」

◇「나자리노」

# 外畫題名 엉터리가 많다

## 내용에도 없는 문안 멋대로 만들어 관객 현혹

外畫 제목이 멋대로다。그래서 이를 보는 관객들만 멍청하게 속고 있다。이런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원제(原題)의 뜻은 물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엉뚱한 제목을 붙인다거나、내용에도 없는 문안을 광고에 실어 관객을 현혹하기 일쑤인 것이다。최근 시중 극장에서 상영중인 外畫「호메스」도 같은 예중의 하나。누가 들어도「호메스」는 분명한 외국어다。그러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더욱 문제는 그런 단어는 영어사전을 찾아봐도 없다。

### 原題무시 主人公의이름 題名으로 쓰기도

### 「4월의바보」가「哀路」、「시골처녀」가「갈채로」

### 「호메스」는 佛語題名을 영어식으로 발음표기

「TROIS HOMMES A ABATTRE」—。이것이 영화「호메스」의 原題다。

우리 글로 표기를 하자면「트로아 좀므 아 아바트르」。물론 프랑스 영화요、프랑스말이다。

굳이 직역을 해서『처치해야 할 세 친구』란 뜻이다。

여기서「좀므」발음(TROIS의 S가 있으므로)의「HOMMES」는 우리말에서의 친구로 영화 題名으로 쓴「호메스」란 바로 이「옴므」발음을 영어식으로 표기한 것。

이같이 원제와는 전혀 엉뚱하게 영화 제목으로 바뀐 일은 과거에도 허다했다。

찰즈·브론슨 주연에「밤의 봉청객」으로 소개됐던 영화의 원제는「Gold·Sweet」(黃金애인)。

또「4월의 바보」는「April Fool」은「哀路」로、「Rising Sun」(밝아오는 太陽)은「침략전선」이란 엉뚱한 제목을 달고 선전됐다。

유명한「黑과 白」은「The Defiant Ones」(말썽꾸러기)의 둔갑이며「건 파이터」의 본명이「The Last Sunset」。

그 외에 클린트·이스트우드 주연의「원웨이·티키트」는「The Gauntlet」(대형)의 변조어이며、「신디케이트·원」는「카운셀러」(The Counseller)의 변형제목이다。

이밖에도「煉獄」(Towering Inferno)이「타워링」이며、「시골처녀」(The Country Girl)는「갈채」、「폭탄」(H-Bomb)을「플라이트·프라이데이」、「싱가포르」(Singapore)는「연정」、「어느 일요일에」(On Any Sunday)는「종말의 라이더」、「홍콩서 온사나이」(The Man From Hong Kong)은「스카이·하이」、「롤러코스터」(Roller Coaster)는「브라디·선데이」、「얼음城」(Ice Castles)은「사랑이 머무는 곳에」、「죽음에 이르는 길」(A Lovely Way To Die)은「보디가드」、「重罪」(High Crim)는「세븐·업스」등이 기억에 남는 엉뚱한 改題 케이스에 속했었다。

그뿐만 아니다。아예 원제따위는 무시한채 영화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소개된것들도 적지가 않았다。

예컨대 엔터니·퀸이 주연한 영화「지옥에서의 승리」(From Hell To Vitory)의 경우가 나오는「파비안」으로、카트린·드뇌브의「세브리느」、그리고「나대의 애인」(The Love of The Wolf)은「나자리노」로 각색하게 개제됐다。

이런 예는 그외에도 많이 있다。「You Go Oh No」(당신에 자면 안돼)는「한밤의 나파산」、「한번으로 부족해」(Once Is Not Enough)는「[illegible]어리」、「빅이 되고 싶은 우바」(The Great White Hope)은「투사」、「쥐를 잡아라」(Kill A Rat)는「쵸이산」、그리고 홍콩영화「黑肥女郞」은「무무의 사랑」로、무술영화「흑鷹」는「王羽의 혈투」등은 모두 극중 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들이다。

또「한밤의 저편」(The Other Side Of Midnight)이「깊은밤 깊은곳」으로 번했는가하면、「밤의 소년」(Boy Night Out)은 명쾌하게도「플레이 보이」로 둔갑, 원제의 뜻은 그대로 살리면서 심히 자극적인 표현으로 눈길을 끈 제목들도 있었다。

이런 케이스론「[illegible]」(The Brain·두뇌)、「킬러·피쉬」(Killer Fish·食人魚)「사랑은 저 멀리서」(Mama Dolorous·悲哀)、「747절대위기」(Airport 77)、「키스·미」(Fool In Around·[illegible])、「신들린 여인」(Antichrist)「리스본 특급」(Unifiic)등도 포함된다。

### 觀客 호기심 유도에만 급급

### 廣告文 보고갔다 실망 십상

內外畵를 막론한 광고 문안도 엉뚱하긴 마찬가지。극중에도 없는 자극성 강한 대사나 내용이 선전물에 버젓이 인용돼 관객들을 유혹하고 있는것이다。그나마 지나치게 관객유치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치졸하기 짝이 없는 광고문안이 쏟아져 나올때가 많다。

美國에서처럼 영화비평가들의 평을 발췌해 이를 싣는 경우와 이점 크게 다르다。

그런데 이처럼 국내에서 공개되는 外畵名의 엉뚱한 改題、그리고 터무니 없는 광고 남무 현상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영화수입사들의 관객동원 전략이 배경의 [illegible] 물론이다。성적 충동이나 자극성 짙은 제명으로 관객의 발길을 유도하려는 속셈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흥행본위만의 단견은 많은 영화팬들로부터『관객을 기만하는 처사』라는 볼멘 소리를 듣기 일쑤。

영화를 즐겨 본다는 한 관객은『지상에 낸 영화 제목과 광고 문안만을 보고 극장에 갔다가 내용을 보곤 실망할때가 적잖았다』며『외화수입사들이 최소한 원제를 밝혀주고、광고문안을 정확히 발췌해주는 관객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줘야 마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秉〉

구독신청
월~토
☎ 533—2361

# 棋界에 春秋戰國의 구름

## —「徐奉洙킬러」張秀英、最高位 도전권 획득

曺薰鉉9단이 천하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기계에 다시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徐奉洙7단이 棋王戰에서 曺9단과 도전7번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사 張秀英6단이 最高位戰 도전권을 따냈고 徐能旭6단도 國手戰 도전권을 놓고 徐奉洙7단과의 일전을 남기고 있다。

◇張秀英6단

지난 18일 열렸던 제22기 최고위전, 본선 토너먼트 최종결승전에서 張秀英6단은 徐奉洙7단을 1백9수만에 불계로 물리쳐 도전권을 획득했다。

張6단은 지난 77년에도 최고위전에서 도전권을 획득、曺薰鉉최고위와 대결했었으나 분패했었다。

曺최고위와의 도전기 5번승부 제1국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張6단은 52년 인천 출신으로 전국고교생 바둑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아마추어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다가 19세인 71년3월 입단했다。

그후 71년 10월 2단、73년 4월 3단、75년 10월 4단、79년 12월 5단、81년 12월에 6단이 되는등 차분히 승단가도를 걸어왔다。

77년 최고위 준우승을 비롯、80년부터 명인전 본선멤버로 활약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왕위전 본선에서 2승을 기록하는등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월간 바둑지의 애독자 질문코너인 중계탑을 담당、독자들의 갖가지 질문에 시원스런 해답을 해주고 있는 張6단은 작년에 장가를 들었다。

週間 바둑話題

○…본선 21국을 모두 완료한 제26기 국수전 본선리그는 徐奉洙7단과 徐能旭6단이 5승1패로 동률선두를 기록、25일 재대국으로 도전자를 결정짓게 되었다。

徐奉洙、姜勳、李相勳、徐能旭、金寅、梁相國、洪太善등 7명의 기사가 1년동안 열전을 벌였던 본선리그 결과는 徐7단과 徐6단 외에 4승2패를 기록한 李相勳4단과 3승3패의 金寅8단이 시드에 잔류했고 姜4단과 梁5단、洪4단은 탈락했다。

○…각기전 본선에서 모두 활약하면서 가장 많은 대국횟수를 자랑하고있는 徐奉洙7단이 제1기 MBC제왕전 본선토너먼트 4강에 진출했다。

### 國手도전자 徐奉洙·徐能旭 각축
### 가또、王立誠 물리치고 王座 도전

徐7단은 준준결승에서 金秀英6단에게 2백11수만에 집흑 불계승을 거두고 준결승전에 올랐는데 4강에는 이미 曺薰鉉9단과 金秀壯5단이 먼저 진출해 있다。

한편 徐7단은 지난8일 열렸던 왕위전 본선리그에서 張秀英6단에게 불계로 패했는데 최고위전 도전자결정전에서도 張6단에 고배를 마시게 되어 張6단은 새로운「徐奉洙킬러」로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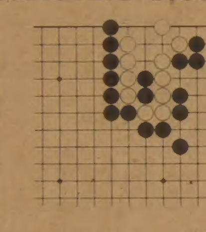
○…일본 7대 기전중 하나인 王座戰 도전자결정 토너먼트에서 가또(加藤正夫) 9단이 대만출신 기사인 王立誠7단을 물리치고 도전권을 획득했다。

天元타이틀을 보유하고있는 가또9단과 하시모또(橋本昌二) 王座와의 3번승부는 21일부터 시작된다。【簡】

## 妙手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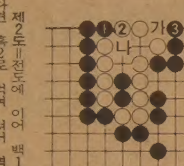
<문제도>

黑先白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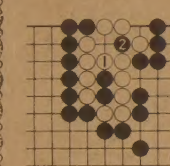


백은 완전히 살아있는 모양처럼 보인다。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헛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왼쪽 백4점의 바깥 공배가 메워졌다는 것을 이용한다。

<해답도>



제1도=흑1로 밀고 들어간 후 백2로 막을 때 흑3으로 침착하게 내려서는 것이 좋은 수。이로써 백은 응수할 방법이 없다。백「가」로 둔다면 물론 흑「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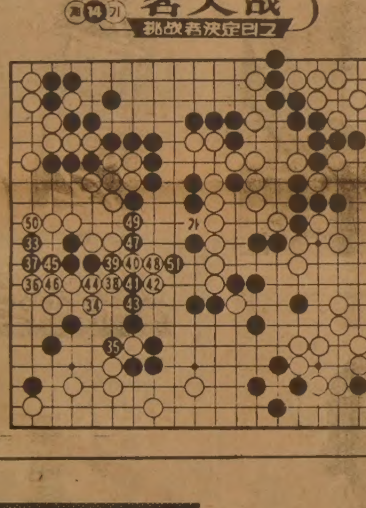


제2도=전도에 이어 백1로 둔다면 흑2로 먹여쳐서 역시 두집을 낼수 없다。

## 第14기 名人戰 挑战者决定리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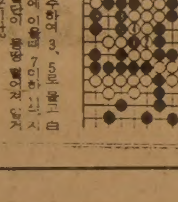
第2局 第9譜 133~151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盧永夏
黑(6段) 張秀英



좌변白집을 黑33까지 철저히 파괴당하여 형세가 이상하게 되자 盧7단은 불가불 강렬한 반격을 피할수밖에 없었다。우순수를 써서라도 黑33까지의 침입구를 나포해야 되는것이다。22분동안 수를 읽고 또 읽은 끝에 우선 白34、그리고 36이하 46까지 실로 놀라운 강수였다。그런데 실은 白46로 했을때 黑49로 가만히 이은수가 白에게는 통렬한 치명타였다。원래 白「가」로 째는수를 보고 시작한 강공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된다。왜냐면 白「가」면 참고도처럼 黑

### 白、張蓼도 허사



1로 밖에서 단수하여 3、5로 몰고 白6을 1자리에 이을때 7이하 11이 지로 좌변 白대마가 몽땅 떨어져 잡히게 되기 때문이다。盧7단은 白50으로 막고 참는 외에 수단을 괴했지만 이제까지의 기세가 갑자기 꺾인것은 무리가 아니다。黑49의 수를 미처 못본것이 실수였을까。여하간 黑51로 급소를 찔러 상 완전히 고립된 중앙白대마부터 살려야한다。48까지의 기록시간은 두 저가 아니었다。【一兀】

# 「한국名作」속의 숨은그림 찾기

## 콩쥐 팥쥐

콩쥐는 어여쁘고 착한 아이였읍니다。콩쥐의 어머니가 일찌기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아들여 콩쥐를 키우려 했으나 새어머니는 팥쥐라는 심술궂고 못생긴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먹을 것 입을 것을 팥쥐에게만 주고 콩쥐에겐 궂은일과 배고픔만 주었읍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아 많은 동물들이 착한 콩쥐를 도와 계모의 학대속에서도 착하고 어여쁘게 커가고 있었읍니다。날이 갈수록 새어머니의 구박과 미움은 더욱더 거세져 콩쥐는 하늘에 계신 어머님의 도움으로 선녀가 되어 하늘나라로 올랐답니다。이에 질투가 난 새어머니는 팥쥐를 하늘 나라로 올려 보내려다가 그만 줄이 끊어져 팥쥐는 죽고 말았답니다。

벌을 받은 것이지요。<작품중에서>

구성·장태산

■숨은 그림

낚시바늘、야구배트、부엌칼、종이배、컵、스푼、나비、밤한톨、가위、모자、벙어리장갑 한짝、양말 한짝

## 海外토픽

### 네스湖괴물은 소나무줄기
### 英電子기술자 "傳說" 일축

이따금 세계의 신문지면을 떠들썩했던 英國「네스호의 괴물」은 실은 소나무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50년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은 英國스코틀랜드 네스호의 검푸른 물속 깊숙이 살고 있다는 전설적인 원시동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있는 증거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써왔었다。

그러나 최근에 직장을 그만둔 英國의 전자기술자 로버트·크레이크씨는 英國의 세계적인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 최신호에서『그같은 전설은 전혀 터무니없는것』이라면서 그동안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온 괴물은 하나의 소나무줄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네스湖의 괴물은 서기5백년께부터 목격돼왔는데 최근 이를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전신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크레이크씨는 스코틀랜드에있는 호수중 괴물이 목격됐다는곳은 네스호를 비롯 테이호、모라호등 3개소로 이3개호수는 그옛날 빙하시대를 견뎌낸 송림에 둘러싸여 있었다면서 아마도 이소나무들이 호수에 떨어져 서서히 가라앉아있다가 괴물로 둔갑한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外誌】

### 카메라兼用 가스라이터 開發
### 美、諜報員用 이용될듯

제임즈·본드의 007영화에서나 볼수있는 카메라겸용 가스라이터가 최근 美國에서 개발돼 첩보원용으로 널리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美뉴욕의 전자보안장치 제조회사인 ESC사가 내놓은 이 제품은 겉으로는 완전한 가스라이터처럼 보이지만 미녹스형의 카메라필름 카트리지를 이용、흑백또는 컬러로 36컷트까지 사진을 찍을수 있는 첩보용 사진기이다。

SC5000으로 명명된 이 라이터겸용 카메라는 한손으로 작동이 가능하며 불을 켜거나 셔터를 누를때 일체 소리가 나지 않는것이 특징이다。

무게가 2온스(약60g)밖에 안되며 세로10cm、가로2·5cm、두께1·25cm인 이 제품은 또 사진광이나 애연가들을 위한 선물로도 인기가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격은 1백95달러(한화 약14만원)。【外誌】

### 王子2명、소부후자 毒殺혐의

지난8월21일 세계최장수 집권을 누리고 83세를 일기로 타계한 스와질랜드국왕 소부후자가 독살됐다는 풍문。스와질랜드 당국은 소부후자가 낳은 6백여명의 왕자중 2명을 父王살해혐의로 왕실의 요청에의해 체포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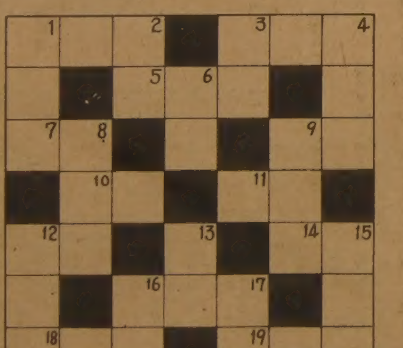
이들 두 왕자는 말라위 마술사가 특별히 제조한 독약을 보약이라고 속여 술에 타서 소부후자국왕에게 마시게 했다는것。이번 두 왕자체포사건은 소부후자 후계자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왕실내부의 알력이 직접적인 원인인 듯하다고 관측자들은 추측。【外誌】

진화(鎭火)대회의 꼬마들 ◇불조심주간을 맞아 메리오네트공원에서 열린 불끄기대회에 참석한 데일·채프만(6·左로부터) 돈·라크(6) 리앤·라크(3) 세 꼬마 어린이가 열연하고 있다。이 꼬마소방관들은 어린이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AP】

##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 뉴스 낱말 풀이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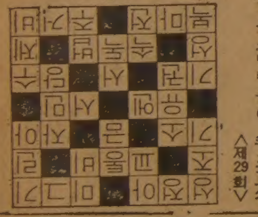
<제29회 퀴즈>



<힌 트>

■가로
1. 여고1년생으로 국가 대표선수에
3. 중공군 조종사가 몰고온…
5. 출근·등교때마다 필요한 돈
7. 소송을 일으킴
9. 자기를 타인과 구별하여 일컬음
10. 미국이 탈퇴를 경고
11. 날씨가 추워지면 겨우살이가 걱정인 층
12. 권리 포기
14. 한 당의 우두머리
16. 책 한권도 5분, 10분만에…
18. 음모가 꾸며지는 곳
19. 연료비·전기료·수도세·집세의 공통점

■세로
1. 별이 써를 상징
2. 점차제
3. 다 갖추지 못한
4. 슬기와 재주가 뛰어난 젊은이를 이르는 말
6. 밤 12시가 되어도 이젠…
8. 목적물을 지배할수 있는 권리
9. 수상직 사퇴로 당총재 자리도
12. 맞춤이 아님
13. 똑같은 분단국
15. 밀가루를 반죽하여 맑은 장국등에 떼어넣어 끓인 음식
16. 운동 경기나 전투에서 우물거리지 않고 몰아침
17. 慶州 명물인 술



뉴스낱말풀이 퀴즈正答 <제29회>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훨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가을 풍경>
단풍은 울긋불긋하고 노처녀는 울고 불고한다。
김갑칠(土月文友會·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1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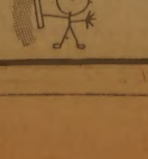
<세상에 별 볼일 없는 것>
사내의 정조。
도람기(재미동포·서울중구충무로1가24의5)

<불확실성시대의 인간>
우표에 침을 발라서 붙였다。그러나 끝내 마음이 안놓여 다시 떼어 풀칠을 해서 다시 붙였다。이래도 혹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안 없어져 철핀 찍는 기계로 찍어 우체통에 넣었다。
—불안한 현대인—
이우용(서울 강동구 잠실4동 시영아파트 130동305호)

<국민교생의 대화>
『넌 다리밑에서 데려왔어。』『누군 다리밑에서 안 나왔나 뭐。』
—성교육 실시후—

★<내 생애에서 제일 기뻤던 날>
마누라가 죽겠다고 아우성친 날。
—산부인과 병원에서—
김태문(충북 바헤이에서)

지금 웃는중




<노약자 좌석>
노련하고 약싹빠른 사람이 앉는 자리。
김흥기(가락아파트71동203호)

<충고합니다>
교양있는 낙서인은 노처녀를 소재로 삼지 않습니다。
마산할 어거지(土月文友會)

<아무리 술에 취해도 실수 안할 사람>
술값을 속으로 계산하며 마시는 사람。
—말단보험 외무사원—
하설표(한국낙서회·서울강동구마천2동349의9)

<일본식 미장원>
곧은 머리를 갈록갈이 왜곡해 드립니다。
가물치(한국낙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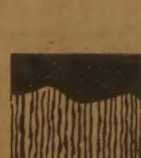
<노총각의 콤플렉스>
내가 장가를 안가는 이유는 순전히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어느 공처가의 아들—
여작재(전국낙서문학회·서울동대문구상봉동84의38)

<만천하 미혼남성 여러분!>
숫가의 선택이 수십년을 좌우합니다。
—공처가 일동—
皮傳(土月文友會회보「계절」가을호 배부중)

<세계는 좁아지고있다>
코로 풀이 많아지고 있다。
피카소향소(미국캔자스의 信五씨서신 작방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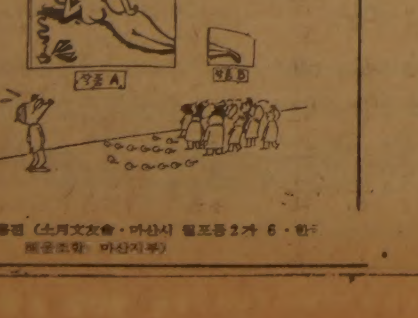
<빈부의 차이>
12만원짜리 학생복에 2만원짜리 운동화를 신었느냐? 1만2천원짜리 학생복에 2천원짜리 운동화를 신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교복자율화이후—
감태광(한국낙서회)

<동물적인 인간>
여자의 마음은 칠면조、남자의 마음은 사냥개。
김갑철



<지하철 공사장>
인부들이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시랑。

<감상의 끝>




강용현(土月文友會·마산시 월포동2가 6·한국해운조합 마산지부)

##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민 병 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 I'M BEHIND IN MY WORK.

밤 늦게 귀가한 남편에게 부인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어요?」 Why did you come home so late? 라고 묻자 남편이 I had stay at the office. I'm behind in my work. (일이 밀려서 사무실에 있어야만 했었지.) 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일이 밀려 있다」를 미국인들은 I'm behind in my work.라고 표현하고 있다.

「공부가 밀려 있다」는 I'm behind in my studies. 「세가 밀려 있다」는 I'm behind in my rent. 와같이 하면된다.

미식 발음에서 behind(비하인드)를 「브하인드」로 발음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것은 자음 다음에 겹게 발음하는 e가 있을 때 자음에 붙여서 발음하므로 결국은 e는 생략되고 자음만 발음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believe (불리브), below(볼로우), deluxe (드락스) 등과 같은 이치이다.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시간에 「영하 3도」를 발음할 때에도 It's three below zero. 비로우 지로우라기 보다는 「블로우 지로우」 같이 흔히들 발음하고 있다.

A : Why did you come home so late last night?
B : I had to stay at the office.
A : Why?
B : I'm so behind in my work, it'll take several evenings to catch up.
A :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B : I wish there was.

A : 간밤에는 왜 그렇게 늦게 집에 들어 오셨지요?
B : 사무실에 있어야 했었지.
A : 왜요?
B : 일이 하도 많이 밀려서 처리하려면 며칠 저녁은 걸릴거야.
A : 제가 도와 드릴 일이 있나요?
B : 그랬으면 좋겠지만 없는 걸.

※late : 늦게, lately라고 하지 말것. (lately는 최근의 뜻임).

catch up : 뒤쫓아 미치다. I can catch up on my work over the weekend. 주말에 밀린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발음】 believe (블리브), below (블로우)

### KEEP THAT IN MIND.

중요한 약속시간을 깜박잊어 먹고 난해하는 분, 자기집 전화번호도 자주 잊어 먹는분, 이와같이 건망증이 심한분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이런 사람을 영어로는 an absent-minded person 이라고 한다. 「건망증이 있는사람」 이라는 말이다. 이럴때 「잊지말고 꼭 기억하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영어로 옮겨본다면 Keep that in mind.이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오늘 오후 3시에 Dr. Jones와의 약속을잊지마세요」 You have a three o'clock appointment with Dr. Jones. 이렇게얘기하자, 「꼭 기억하지」라고 할때는 I'll keep that in mind. 라고 한다. 또한, 어떤때는 영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않아 자꾸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미국인들은 I'm not myself today. 직역을 한다면 오늘은 내 자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나 「오늘은 내정신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A : Have you gone for that job interview at the department store?
B : Not yet. My appointment is tomorrow.
A : You have the experience. You should do all right.
B : I hope so, anyway.
A : Remember, they want someone who works well with people.
B : Yes, I'll keep that in mind.

A : 백화점에 취직면접하러 가보았나요?
B : 아직 안갔읍니다. 시간약속이 내일입니다.
A : 경험이있으니까잘해내시겠지요.
B : 어쨌든, 그랬으면 합니다.
A :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일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B : 네, 그말씀 기억하겠읍니다.

※department store : 백화점, department라고하지말것. 【발음】 디팔먼스토어. should do : 「슈드두」가 아니고 【슈두】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 (12불), 제3권(12불)

## 連載 소설

##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肉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97

### 지난줄거리

다혜는 유학가지 않으면 안될 사연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반대할 만큼 총찬에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게 없었다. 실업자이고 건달일 뿐 가문이나 떠말있는 집안도 아니고 성공한 젊은이도 아닌 그저 기성세대의 눈엔 믿을수 없는 사내였다. 밤은 두 사람의 사랑의 확인으로 마지막 옷까지 벗었지만, 끝내 다혜의 거부로 마음의 상처만 남긴다.

『나, 고등고시 떨어졌다.』

명식이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찌릿하게 만들었다.

『이야, 해냈구나!』

나는 전화기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명식이의 들뜬 목소리가 우울했던 내 가슴을 후련하게 해 주었다.

『거기 어디냐? 임마, 판사 선생. 한턱 내얄 거 아냐.』

『내야지. 내고 말고.』

『어디야?』

『명동성당이다.』

『임마, 왜 거기 있어? 설마 성모 마리아를 재판하는 건 아니겠지?』

『지랄하지 말고 빨리 나와. 다혜씨도 데리고 나와라.』

명식이가 명동성당의 성모마리아상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렇게 [illegible]다는 걸 보 [illegible] 아름다와 보일 수가 없었다. 명식이는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제일 먼저 성모 마리아상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겠다고 말했었다.

『혼자 있나?』

『혼자일 턱이 있니? 삼천만명하고 같이 있다.』

명식이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결국 해냈구나. 정말 잘했다.』

『다 네 덕이다.』

『금방 갈테니 꼼짝마라.』

나는 다혜에게 전화를 했다. 다혜는 집에 없었다. 집안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명동쪽으로 달리며 겨본 마음 뒤에 도사리고 있는 질투심을 감출 수가 없었다. 꼭 한번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싶었던게 내 솔직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재판관이 되어 명판결을 해보고 싶었었다. 옹졸하지 않은 마음으로 내 양심을 전 재판을 하고 싶었었다.

성모병원 마당의 잔디밭 모서리에 앉아 있는 명식이의 모습이 꽤 우람해 보였다. 언제나 저는 다리 때문에 피곤해 보이던 얼굴이 아니었다. 당당하고 거칠것 없는 표정이었다. 언제부터 성모 마리아상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초조한 기색도 없었다.

명식이는 이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병신이 아니었다. 다리를 저는 똥통학교 출신도 아니었다. 그는 당당하게 일류 대학과 정상적인 신체를 소유한 사내들도 치러 내기 어려운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물이었다.

신체장애자라고 해서 법관임용에서 탈락시킨 치졸한 이면을 기억하지만 명식이의 쾌거는 나중에 탈락을 시키든 안시키든 그걸 넘어서는 기록이었다. 신문지상에 신체장애자의 법관임용 탈락을 보며 나는 명식이를 생각했다. 정상인보다 몇배, 아니 몇십배 도량이 크고 마음 씀씀이가 넓은 명식에게도 그런 시련이 따른다면… 그건 비극이라고 할 수밖에없었다.

인간이 인간을 재판할 수 있다는 건 엄격한 의미에서 모독일 수도있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으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 등장하는 재판관이라면 인간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물며 신체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을 법관임용에서 제외할수 있다면 이미 인간을 재판할 도량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법을 다루는 사람을 선택할 때는 어떤 방법이든 최선을 다하여 뽑아야 할 것이다. 차라리 우리들의 신(神)을 뽑듯이 엄숙해야만 할 것이다.

어쨌든 지금 그런 걸 따질만큼 한가롭지 않았다. 내 친구가, 절름발이 내 친구가, 똥통학교 다니던 내 친구가 사법고시에 당당하게 합격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싶었다.

『명식아!』

명식이는 돌아섰다. 얼굴 가득하게 환희가 담겨 있었다.

『이 새끼야. 내가 해냈어. 내가 해냈어. 무슨 말인지 알아?』

명식이는 비틀거리며 뛰어왔다. 녀석의 얼굴엔 금새 눈물이 번져 흘렀다.

『울지 마, 이 새끼야.』

나는 명식이를 잡고 풀밭에 주저앉았다. 그의 병신이 된 다리를 절룩거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다리 한 짝을 떼어 줘서라도 마음놓고 달리게 하고 싶었다.

『나 좀 울게 내버려 둬라.』

## 이제부터 철들어야 해…법만이 만능이란 생각은 버려

명식이가 철부덕거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

『울지 마, 넌 울어선 안돼. 이 새끼야, 왜 울어. 넌 울지 마. 해냈잖아. 넌 이제 병신도 아니고 한 많은 똥통학교 출신도 아냐.』

나는 녀석의 등짝을 후려치며 말했다. 녀석은 내 손목을 힘 주어 잡았다.

『왜 합격소식을 늦게 알렸냐? 신문에 네 이름이 났길래 연락이 올 줄 알았지. 소식이 없어서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 불합격해서 자살한 줄 알았어. 이 자식아.』

얼마 전에 신문의 합격자 발표란에서 나는 명식이의 이름을 찾아냈었다. 최고 득점자도 아니고 최연소 합격자도 아니어서 자세한 신상을 알 수 없었지만 명식이의 합격을 점칠 수 있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동명이인이란 생각을 했다.

가장 먼저 달려와 합격소식을 알려야 할 녀석이었는데도 소식이 없었다. 나는 차마 확인할 수가 없었다. 정말 합격자 명단의 이름이 동명이인이라면… 명식이는 자살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나는 안죽어. 살아 있어야 돼.』

명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그런데 왜 이제 연락했냐?』

『그렇게 됐어. 술 한잔 살래?』

『사고 말고. 암, 사야지. 가자.』

우리는 성모병원을 끼고 걸어나와 택시 정류장으로 갔다.

『어디 가서 마실래?』

명식이가 물었다.

『무교동, 어때?』

『택시 탈 거냐?』

『판사 나리 모시는데 택시가 문제냐? 헬리콥터 없는 게 한이다.』

『지랄 말구 걷자.』

『임마, 판사영감. 오늘은 하자는대로 해. 까불면 판사 아니라 판사 할애비라도 그냥 안두겠어.』

『난 걷겠다. 다리 병신도 잘만 걸어다닌다는 걸 알아야 돼. 법관이 다리 가지고 재판하거나 기소하거나 변호하는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난 걷겠다. 아작같이….』

명식이는 절룩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명식이 뒤를 처덕처덕 따라갔다.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였어. 신문을 보고 내가 병신인게 왜 그렇게 미웠는지 몰라. 다리 병신이 못하는 거 많지. 달음박질 선수도 될 수 없고, 야구선수도 될수 없고…그러나 앉아서 하는 건 성한 사람보다 몇배 잘할수 있어.』

명식이는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빠른 걸음걸로 앞서 가며 말했다.

『임마, 이젠 그런 거 따지지 마.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그만야. 넌 해냈잖아. 넌 병신이 아냐. 그리고 똥통학교 출신도 아냐. 당당하게 네 실력대로 된 거야.』

『알아. 그러니까 걷겠다는 거다.』

『걸어라. 까짓거 걷자.』

우리는 무교동 쪽으로 걸어갔다. 절룩거리는 녀석의 발걸음이 나보다 빨랐다. 그것이 녀석의 한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많은 세월을 그런 방황의 늪과 병신 취급하는 사회속에 던져져 있었던 명식이의 한은 이제 어느 정도 풀렸는지도 모른다.

당당하게 활보해 본 것도 오랜만일 것 같았다. 명식이는 오늘의 당당한 활보를 위해 숱하게 움츠리고 살았었다. 산 속에 들어가 외로운 투쟁을 해온 것도 오랫동안 그의 가슴속에 감추어 두었던 승부기질 때문이었다.

술상을 앞에 놓은 명식이의 얼굴엔 땀이 흐르고 있었다. 명동에서 무교동까지 줄기차게 빠른 걸음걸이였다. 다리 병신이지만 누구보다도 잘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 준 셈이었다.

『어쨌거나 넌 나쁜 새끼야.』

나는 녀석의 식성대로 막걸리와 감자탕을 시켜 놓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됐어.』

괴로운 표정이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한테 연락을 않다니. 이거 이러다가 법관임용되면 상판때기도 안 보여 주는 거 아냐?』

『지랄하구 있네. 그렇게 됐다니까.』

『뭐가 그렇게 됐다는 거냐? 이 새끼야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느긋하게 재려는 거냐? 넌 혼 좀 나야 돼. 사람 애타는 거 모르고….』

나는 괜히 녀석을 다그치고 싶었다.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목뻐가 뻣뻣해지는 친구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녀석은 술만 마셨다. 초조한 빛도 없었다. 그저 그렇게 느껴서인지 모르지만 퍽 느긋한 모습이었다.

『임마,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네 일이 끝난 거 아냐. 이제부턴 철이 들어야 돼. 법만이 만능이고, 법만이 진실이고, 그 따위 생각은 지금부터 버려야 돼.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이 땅에 없도록 발버둥치는 일만이 네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 법보다 우선이 상식이란 걸 잊지마. 사람을 사람이 재판하는 건 순전히 인간적으로만 보면 엄청난 모순이지만, 또 법 없이 모여 살 수 없는 게 인간이니까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다. 잘난 것도 없고 빼어난 것도 없는 거야. 보통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 잠시 사람들끼리 복잡한 문제를,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 달라고 맡겨 준 자리라는 것도 잊지 마.』

나는 왜 그런지, 명식이한테 만은 하고 싶은 얘기를 죄 다 하고 싶었다.

『싫컷 해라.』

명식이는 웃고 있었다. 축하해 주는 자리치곤 좀 심한 자리였지만 그만한 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우정이었다.

『내가 조금은 미운 것도 사실이다. 나도 꼭 한번쯤 사법고시, 그 놈의 전난 시험에 합격하고 싶었던 놈이니까 말이다. 어쨌든 넌 인간이 돼야 해. 상식적인 인간 말이다. 슬프면 눈물 흘리고, 슬프면 가슴을 쥐어뜯고, 불의를 보면 소릴 지르고, 잘난 척하는 놈이면 털을 돌리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신발짝이라도 벗어 주는 놈이 아니면 사람을 재판할 자격이 없는 거다. 이제부터 너는 죽을 때까지 매일 통곡하는 놈이 돼야 해.』

『내가 왜 통곡해. 매일 기뻐서 웃어야지.』

『지랄 말고 듣기나 해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 진정 법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매일매일 통곡하며 살아야 돼. 사람이 사람을 법이라는 테두리로 다루려면 당연히 그래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면 잘못한 게 있다고 꾸중할 자리가 바로 법을 다루고 행사하는 자리라는 걸 잊지 마라. 양심적인 재판을 진행하지 못할 땐 언제라도 옷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 양심을 지키다 그 자리에서 죽는 놈이 돼야 한다.』

『지랄하구 있네. 너 벌써 술 취했니?』

명식이가 가볍게 받아넘겼다. 그러나 명식이의 가슴을 나는 읽고 있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을 위한 상식적인 법조인이 될 친구였다.

『처음엔 다 그럴 각오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어버리는게 인간이다. 자꾸 자기합리성을 주장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옳게만 보이는 거다. 만약 네 놈이 그 지경이 된다면 박살날 줄 알아라.』

『내가 맨 처음 할 일은 널 잡아 들일 일일지도 모른다.』

명식이가 낄낄거리며 한 말이었다.

『나 같은 놈 잡아 가는 놈이야 말로 진짜 법을 아는 놈이다.』

『넌 진실 빼면 악마 같은 놈이지. 어쨌든 너한테 자살나는 놈은 안될란다.』

『어머니는 어떠시대?』

『돌아가셨다.』

『뭐라구?』

『합격소식 듣던 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거렸으니까 아마 내가 합격한 걸 알고 가셨겠지만, 그 날 연탄 가스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연락 못했니?』

『그랬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합격통지 받고 기뻐할 틈도 없었다. 돌아가시려고 의식도 없는 어머니 귀에다 대고 수십 번, 수백번 합격했다고 악을 썼지만….』

『이 새끼야, 내게 연락해얄 거 아냐? 느이 어머니는 너 혼자만 어머니가 아녔잖아, 임마.』

『미안하다. 그럴 정신이 없었다.』

하루만 늦게 돌아가셨던들 춤을 추며 나를 껴안고 싶컷 울다라도 가셨을텐데 말이다.』

난 안다. 명식이의 심정이 어떠했었는지를. 병신 자식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냈는데 그 순간을 못보고 돌아가신 한 많은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의 귀에 대고 합격했다고 악을 쓴 명식이의 처절함을.

『난 사법고시 합격증보다 어머니가 필요한 놈이다.』

명식이는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네 말마따나 난 병신이다. 병신 자식이 그런 자리에 설마 올라설 수 있느냐고 믿지 않던 어머니였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도 어머니는 병신을 받는 대학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어머니의 못 살고 찌든 한, 병신 자식 때문에 일생을 죄어산 가슴을 풀어 드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게 어떤 건지 정확하진 않지만 내가 법조인이 된다면, 내 맘처럼 양심을 지키는 놈이 되는 길밖에 없을 거다. 물론 세월이 가면 어머니를 잊을지도 모르고, 내 외곬만이 진실이라고 우기는 놈이 될지 모른다. 네가 그런 나를 자살시켰으니까 그걸 믿고 기다리는 놈이 될란다.』

우리는 정신 없이 퍼먹었지만 여간해서 취하지 않았다. 술에 비교적 강한 체질이지만 오랫동안 술을 입에도 대지 않은 명식이가 제법 견디어내는 걸 보면 술 들어가는 배는 따로 차고 나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장례는 잘 치러 드렸니?』

『합격통지서 한 통으로 다 되더라. 동네 사람들만 우쭐했지.』

『그래서 그런 깡촌에서 너 같은 놈이 나왔으니 기뻤겠다.』

『판사영감 꺼떡꺼떡하다가 내려와서 국회의원 하라더라. 그만한 인물이 나 하나 뿐이라면서 말이다.』

『그만한 인물이야 충분하지. 국회의원 친구 둬서 나도 해먹자. 국회의원이 막걸리에 감자탕이나 먹어서야 쓰겠나? 좌악 뽑고 다시 시작하자.』

『임마, 선거할 때 이런 거 같이 먹는 연습 미리 해두는 거라구. 나같이 난 놈도 이런 걸 먹는다 이거다.』

『동네에서 밥 준다고 나리치던 사람 없었니?』

『그래도 난 병신 아니냐.』

『이 새끼가 꿰지고 싶은가.』

『미안하다.』

내가 발끈해서 욕지거리를 하자 대번에 고개를 푹 수그렸다.

『우리 시골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장 판검사 영감이 된 줄 알더라. 그리고 판사·검사면 무슨 짓이든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 그 동안 사회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장 양심적인 우리 사회가 그럴 턱이 없지. 아무렴, 그럴 수가 없지.』

『지랄 그만하고 술이나 먹자.』

명식이는 사정 없이 술을 마실 작정인 것 같았다.

『이것 좀 읽어 다구. 우리 동네 아저씨 뻘되는 사람이 나같은 놈을 거들며 보지도 않다가 고시 패스했다니까 당신 딸 좀 구해 달라고 야단이다. 차마 거절 못하겠더라.』

우러러 보는 동네 사람들, 그 순박한 사람들이 단체로 찾아와서 판·검사 영감 실력으로 이것좀 해결해 달라는데야…그래서 네 얼굴 떠오르길래 고개를 끄덕거렸다.』

명식이가 내민 편지는 일본에서 온 것이었다. 명식이의 아저씨 뻘되는 사람의 딸인데, 인물이 반반한 모양이었다. 편지내용은 무용 공연하러 일본에 건너갔지만 깡패조직에 팔아넘겨져 몸 파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과 편지조차 할 수 없는 감금생활을 한다고 쓰여 있었다.

『이게 서울의 여자 팔아먹는 계보인가 보구나.』

나는 편지 속에 있는 또다른 편지지에서 그녀가 팔려 간 과정과 팔아먹는 조직체가 있는 장소와 팔아먹는 숫법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갔다.

『이거 내가 가져 가도 되니?』

『베껴라.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이 놈들을 잡아다가 네가 재판하는 꼴 좀 봤으면 좋겠다.』

나는 메모지에 그녀의 편지 내용을 간추려 옮겼다.

『그런 놈 잡아다가 확 목을 베어 줬으면 좋겠냐?』

명식이가 물었다.

『이건 신종 정신대란 말이다. 이런 자식들은 아예 뿌리를 확 뽑아 없애야 돼.』

『바로 네가 원하는 게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감정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은 안될 거다.』

『니기미… 네 말이 맞다.』

우리는 시끄럽게 웃었다. 녀석은 혀가 빠짝 구부러진 소리를 낼 정도였다. 나도 꽤 취기가 올라왔다.

## 억울한 사람 한사람이라도 없도록 발버둥치는 거야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전역 공급, 주문배수

##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a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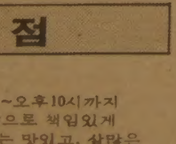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 식 품 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님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 (B) 532—0200. (R)537—5830

##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더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광고문의 533—2361

## 테 레 비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 한 방 원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복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 구 인

경험 있는 재봉기술자 구함.
(단침및 쌍바늘 사용)
부분 일거리임.
신청: Irving Posluns, division of Dyles
637 Lakeshore Blvd. W. 3층
Gino에게 문의 바람.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한국음식에 조예가 있으신분, 약간명 모집함.
658½ Bloor St. W.
전화 : 537-0432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스토아 헬퍼 구함.
풀타임 혹은 주말(Jarvice & Bloor)
전화 : 922-4135

경험있는 가게 헬퍼 구함.
전화: 266-6355 스카보로지역.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나이론자켓 만드는데
좋은 월급. 휜치와 웨스톤 근처.
전화: 746-0054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전화: 923-4354 Mr. 김

출퇴근 하실 베비씨터 구함
◉스카보로지역
전화: 431-0852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하루 7시간. 전화: 532-6143 · 532-9638

Pioneer 라디오수리 기술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전화: 445-8530 캐니 or 하이디.

캐쉬어 구함.
Keele & Lawrence 근방
전화 : 248-6442 신

경험있는 여자 또는 남자 캐쉬어 구함.
시간: 오후4시-밤11시까지. 풀타임 가능.
전화: 625-1620(미시사가 지역)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 개 인 지 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 기관및단체

| | |
|---|---|
| 총영사관 | 598-4608 |
| 한 인 회 | 755-9288 |
| 노 년 회 | 755-8079 |
| 실업인협회 | 533-7923 |
| Y.M.C.A. | 536-1166 |
| 외환은행 | 364-2890 |
| 외환은행 Bloor 지점 | 533-8593 |
| 한일은행 | 865-0456 |
| 조흥은행 | 363-3448 |
| 코리아타운번영회 | 532-2727 |
| 호남향우회 | 651-8835 |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 동 우 회 | 261-2917 |
| 캐나다체육회 | 533-9336 |
| 한인신용조합 | 533-9387 |
| 천주교신용조합 | 363-0097 |
| K. A. L. | 862-8250 |

## 매 매

TUCK SHOP(시간 짧고 이윤좋은 가게) $15,000다운+모기지
개인사정으로 급매, 주매상: $2,500 아스킹: $25,000+스탁
전화 : 275-9507 20 Mississauga Valley Blvd.

음식점 매매 함(260명의 좌석이 있음)
6,000 Sq. Ft. Bloor & Bathurst 근처
전화: 961-4451 KADRI

버라이어티나 그로서리 가게를 새로 차리는 분께
물건과 장비를 실비로 드리겠음
전화: 368-9018, 366-0960

빌딩과 잘 꾸며진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이층에 살림집이 있음. QUEEN STREET EAST.
아스킹 : $79,000+스탁 전 화 : 465-1005 MR. Kung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Lawrence & Allen Express)
Plaza 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759-8658(R). 781-6774(B)

전망좋은 그로서리가게, 토론토 북쪽 15분거리.
주매상: $6,600이상, 아스킹: $79,000 렌트: $880
3년+10년 옵션 전화: 833-6318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버라이어티 스토아(TILSONBURG)
주매상: $3,500 9am-6pm
일요일 문닫음. 렌트: $825(이층에 2베드룸아파트 포함)
권리금없이 $10,000만 다운요.
스탁: 약$35,000 나머지 10% 모기지
연락처: (519)842-5741 혹은 453-6088로 문의 하세요.

Dry Cleaning depot. 매매
년매상 : $50,000
전화 : 787-1549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좋은 가격으로….
전화 : 783-0134 오후4시-8시사이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자동차 매매. ▲'73 PONTIAC PARISIENNE. 350 Auto.
쌍 마후라. Power Handle. P.B. P.W. 에어콘. 76000마일. Excel Con.
여자운전, CEPT. $1,850. ◉전화: 241-6392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5개월된 새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Plaza에 위치한 깨끗한 가게. 주위에 식당, 사무실이 많고 경쟁자 없음. $31,000+스탁. 전화: 294-8164

베커 프렌자이스 급매.
3208 Danforth Ave.
전화: 699-6583

버라이어티 가게 급매
주매상: $4,000 리스: 1년(650불)+5년
550 Sheppard Ave. W.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깨끗하고 전망좋은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4,000~$4,500 Video Arcade(licence 있음)
전화: 560-0612 MR. CHUNG

당구장 매매 함.
비데오 머신들과 스넥바 있음. 좋은 Plaza내.
전화: 531-9216(오후5시-밤12시) GEORGE

- Smoke & Gift shop
  주6일 open 주매상 6,500~7,000
  리스 1990년 렌트 1,100(2층아파트 포함)
- Coffee & Snack shop Shopping mall내
  6일(open)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Option.
- 드라이 크리닝
  다운타운 고급주택가에 위치함.
  주매상 3,000불 렌트 1,000불 리스 9년
- 도낫스 주 9,000불 리스 15년

A.E. LE PAGE Real Estate 전화: 741-9170 Mrs. 우.

자동차를 파실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533-2361

## 사 람 찾 음

수원사시던 홍정애씨를 찾읍니다.
전화: 294-5750 MRS. 리.

## 아파트렌트

잔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셋방(1층 Flat)-1Bedroom Apt. 다운타운지역
차고·세탁기·히팅등 포함 월 $430
독신자 또는 부부. Christie×Dupont(532-9581)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있음. 스카보로 지역
(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콘도미니움 For Rent or Sale. ◉12월1일부터.
Victoria Park & Danforth(써브웨이 건너편)
◉렌트: 월 $700(관리비 포함) ◉전화: 694-4812

사무실 대여함.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890sq.ft.
전화 : 535-8801

##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 보 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 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 차 매 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 선 물 센 타

빅·세븐 선물센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5 일에 $ 15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